

# 濟州道 幼稚園 教育의 現況과 問題

吳 璟 鍾

< 目 次 >	
I. 序 論	II. 本道 幼稚園 教育의 現況 : 調查結果 및 解釋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幼稚園 教育의 內的 要素
2. 研究의 內容	2. 幼稚園 教育의 外的 要素
3. 研究의 方法	3. 地域別 幼稚園 分布上의 問題
4. 研究의 制限	IV. 本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 및 提言
II. 本道 幼稚園 教育의 概要	1. 本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
1. 濟州道 幼稚園 教育의 發展過程	2. 提言
2. 本道 幼稚園의 概況	

##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幼兒 및 就學前 教育은 그 重要性이 世界的으로 強調되고 있음은 勿論 우리나라에서도 80年代 教育의 主要 關心事의 하나이다. 文教部에서도 81年度를 基點으로 公立國民學校에 幼稚園을 併設시킴으로써 幼稚園 教育을 公教育의 一環으로 확장, 발전시키려는 努力이 경주되고 있다. 人間發達에서의 幼兒期의 早期教育環境의 重要性이나 社會的 機會均等의 理念을 구현한다는 點에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人間이 環境으로 부터 받는 영향은 이질 때일수록 크고 심각하다. 여기에 幼兒教育이 重要한 理由가 있다. 一般的으로 이질때의 營養失調, 文化失調, 否定的 環境일수록 그후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可逆性이 커다랗다. 可逆性이 적은 行動特性일수록 學習하기에 最適한 時期를 놓치면 그 시기에 學習하지 못한 것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는 點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1)</sup>

人間의 知能發達은 可逆性이 크지 못하다. 그렇다면 人間의 知能開發, 건전한 性格形成을 위한 最適의 時期는 바로 幼兒期라고 한다. 一般的으로 이렇게 幼兒教育의 必要性은 “知的發達을 促進시키고 才能의 早期發見을 위해서, 社會性的 發達을 돕고 풍부한 情緒生活의 基

1) 李鍾昇, 金銀實, 幼兒教育에 관한 탐색적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3, p. 5

을 마련하는데, 弱화되어가는 家庭의 教育的 기능을 대신”<sup>2)</sup> 해주는 일등에서 그 理由를 찾고 있다.

全國水準에서는 就學前 教育的 重要性에 대한 理論的 高尙, 취학전 教育的 發展過程, 幼稚園 兒童의 學習準備度, 幼兒教育 프로그램 開發에 대한 탐색적 研究等 幼稚園 教育的 現況과 問題點 등이 광범위하게 研究되고 있으며 이들 研究들이 지적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概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1. 幼稚園이 制度上 學校이면서 完全한 公教育 機關으로서의 認定을 받지 못하여, 獨立된 獎學機構가 없고, 義務教育機關도 아니면서 초등교육 獎學機構에 豫속되어 있으므로 獎學指導에 問題點이 많다.

2. 幼稚園 教育的 機會均等に 問題가 있다. 幼稚園이 大部分 都市에 偏중되어 設立되어 있으며 (約 67%, 서울만 30%) 設立者도 大部分 宗教系統의 機關 (約 66%)이며 幼稚園 就學率도 23%에 불과하여 각령아동 극소수만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文敎部令으로 制定된 幼稚園 教育課程에 未비한 點이 많다. 이 教育課程에 근거하여 마련된 細部指針 (教育活動內容, 指導方法, 教育評價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教育現場과의 연결, 地域的 特性의 反映, 국민학교 교육과의 인권성등에 關하여 혼란과 問題가 있다.

4. 幼稚園 教師資質에 있어서 資格과 學歷이 問題가 있다. 진채교사의 26.3%가 무자격 교사이며 高卒以下の 學歷 所持者가 25.7%나 된다.

5. “學校施設 設備基準令”은 各級學校를 一括적으로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細則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實際 幼稚園의 施設, 設備의 基準令으로는 막연하고 未비한 點이 많다.

6. 幼稚園 教材와 教具에 대한 全般的인 檢討와 研究가 있어야 한다.

初, 中等學校 教育과 달리 幼兒教育에서는 多樣하고 풍부한 教育資料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幼稚園 教育的 경우, 教育的으로 研究되어 開發된 教育資料가 未약하여 教育 實踐에 많은 난점이 있다.

7. 幼稚園 財政이 正常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幼稚園 財政에 있어서 財團補助나 設立者補助는 形式에 불과하며, 全無한 상태에서 유치원의 教育施設과 教師대우에 있어서 미흡한 點은 이러한 財政上의 問題에 起因하고 있다.

8. 社會에서 幼兒教育에 대해 未바른 認識을 하도록 指導, 啓蒙할 需要가 있다.

2) 정원식, “幼兒教育的 必要性” 한국유아교육협회, 유아교육(창간호), 1970, pp. 16~19.

3) 李鍾昇, 金銀寶, 전계서와 金光雄 의 4인, 韓國幼稚園教育的 現況과 問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5, 참조.

위와 같이 全國水準에서의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과 이에 대한 提言이 제시되고 있거나와 道單位의 地方水準에서도 그 地方 나름의 幼稚園 教育의 확장 발전을 위한 戰略樹立이 必要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基礎資料의 수집과 탐색적 提言이 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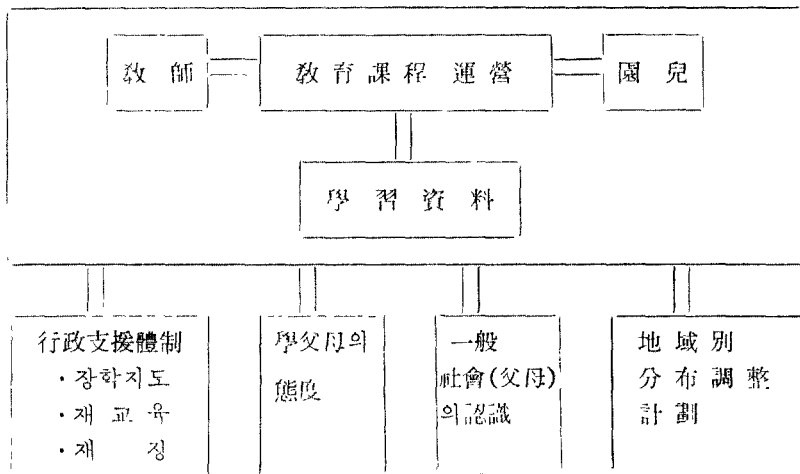
따라서 本 研究은 現行 本道 幼稚園 教育의 現況을 分析하여 本道 幼稚園 教育이 지니고 있는 諸般 問題를 파악 함으로써 將來 本道 幼稚園 教育의 綜合發展計劃 樹立의 基礎資料를 마련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 2. 研究의 內容

本 研究의 目的을 위하여 本 研究가 遂行할 研究內容은

- 1) 本道, 幼稚園 教育의 實態를 파악하고
- 2) 本道 地域別 幼稚園 分布調整上의 問題를 파악하여
- 3) 本道 幼稚園 教育의 확장, 발전에 따른 問題點을 分析한다.

上記 研究內容 範圍를 具體化하기 위해서, 幼稚園 教育의 樣狀을 決定하는 關聯變因을 教育課程 運營을 中心으로 하는 內的 要素와 行政支援體制를 中心으로 하는 外的要素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關聯變因模型을 樹立하고 本 研究의 細部 內容으로 잡는다. 그것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3. 研究 方法

- 1) 研究期間 : 1980. 12 ~ 1981. 12
- 2) 調査對象 :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道內 幼稚園, 幼稚園 教師, 學父母, 一般父母 (유치원

대상아동을 가진 非學父母)들이다. 調査 對象別 標集方法과 標集數는 다음과 같다.

가. 幼稚園 및 幼稚園 教師

本道 幼稚園 現況을 調査하기 위하여 道內 所在 全數인 51個所 幼稚園 (공립 34, 私立 17)을 對象으로 하여 本 研究者가 作成한 調査紙에 의해 조사했으며 調査紙 回收狀況은 다음 <表1>과 같다.

또한 幼稚園 教育 全般에 걸친 內容을 調査하기 위하여 上記 51個所 幼稚園에 在職하고 있는 教師전원에게 本 研究者가 作成한 質問紙에 의해 調査했는데 그 回收狀況은 <表 1>과 같다.

나. 學父母

學父母 標集은 層化無選 標集 (stratified random sampling) 方法에 의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道內 學父母의 地域別 分布는 제주도 956名, 북제주 734, 남제주 881名 이나, 같은 比率로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각기 地域別로 150名씩을 標集對象으로 잡았다. 各 地域別로는 그 地域內의 幼稚園 所在地를 中心으로 7~8名씩 無選標集했으며 그 回收狀況은 <表 1>과 같다.

다. 一般學父母

一般學父母의 標集은 地域別로는 學父母 標集方法과 같이 地域別로 各 100名씩을 標集對象으로 하였으며 各 地域內의 標集은 幼稚園 所在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本 研究者가 在職하고 있는 濟州教大 1學年 學生들의 出身地域이 다 包含 되도록 標集하였으며 그 回收狀況은 <表 1>과 같다.

<表 1> 調査紙 및 質問紙 回收狀況

지역별	유치원			교사			지역별	학부모			비학부모		
	대상	회수	회수율	대상	회수	회수율		표집	회수	회수율	표집	회수	회수율
계	51	35	68.6%	77	42	54.5%	계	450	362	80.4%	300	270	90.0%
공립	34	22	64.7%	35	18	51.4%	제주시	150	129	86.0%	100	98	98.0%
사립	17	13	76.5%	42	24	57.1%	북제주	150	116	77.3%	100	87	87.0%
							남제주	150	117	78.0%	100	85	85.0%

3) 調査道具

本 研究에 利用된 道具는 1種의 調査紙와 3種의 質問紙로서 應答方式은 問項의 性質에 따라 選擇하거나 必要한 內容을 記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內容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가. 幼稚園用 調査紙

本 調査紙는 크게 두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부분은 幼稚園 조직, 학급, 교원, 자격, 경력, 월아, 월아의 통학수단, 교육과정운영상황, 등이 주요 내용이고 두번째 부분은 학교

시설, 설비기준령 (1980. 9. 26. 대통령령 제10031호)와 학교 교구 선비에 관한 규칙 (1981. 2. 27, 문교부령 제488호)의 내용을 幼稚園이 얼마나 保有하고 있는지 그 狀況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나. 教師用 質問紙

本 質問紙는 總 52問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幼稚園 教育活動에 따른 一般事項 8問項과, 教育課程進행에 따른 13問項, 研修, 再教育狀況에 따른 4問項, 장학지도 狀況에 따른 6問項, 재정에 관한 3問項, 評價, 評価에 따른 3問項, 유치원 교사의 복지후생 대제에 관한 4問項, 학부모 면담에서 면담내용의 경향에 관한 11問項으로 構成되었다.

다. 學父母 質問紙

本 質問紙는 응답자의 狀況變因 즉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생활정도에의 總 8問項과 調査員의 「面談結果의 要約」으로 構成되었으며 幼稚園에 자녀를 보내게 된 動機, 幼稚園의 層級 수단, 거리, 幼稚園에 드는 경비, 幼稚園 입학후의 아동 행동의 변화등이 주요내용이다.

라. 非學父母 質問紙

本 質問紙는 응답자의 狀況變因의 記述외에 總 5問項과 調査員의 「面談結果의 要約」으로 構成되었다.

가장 가까운 幼稚園과 집까지의 거리, 幼稚園에 안보내는 이유, 幼稚園의 성격, 가까운 곳에 幼稚園이 생기면 幼稚園에 보내겠는가의 여부등이 주요 내용이다.

4) 調査方法

調査紙와 質問紙 作成을 위하여 本 研究者가 一線 幼稚園을 직접 방문하는 것과는 별도로 濟州教育大學生 150名 (1학년 120名, 2학년 30名)을 調査員으로 教育시키 각 幼稚園을 1名이 담당하여 調査紙와 教師用 質問紙를 直接 의뢰하고 回收 도록 했다. 學父母 및 非學父母用 質問紙는 120名의 學生을 地域적으로 配定하여 그 地域內의 任意의 學父母와 面談하여 學父母의 學力에 따라서는 調査員이 記入을 도와주도록 했으며, 各 調査員에게는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이라는 주제로 「面談結果의 要約」을 제출도록 했다.

4. 研究의 制限

1) 本 研究에서 樹立한 幼稚園 教育 實態調査 關聯變因模型의 幼稚園 施設, 設備 및 學習 資料의 狀況과 問題點은 調査紙의 해당 項目내용이 극히 불성실하여 그 타당성이 의심됨으로 부득이 본 연구에서 除外되었다.

2) 調査員들이 學父母의 면담에서 상남비율로 “幼稚園 경비가 많다”의 반응을 얻었고 질 문지에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幼稚園에 드는 경비 (私教育費)의 추적은 실패하여, 본 연구에

서 다루지 못했다.

3) 本 研究의 「地域別 幼稚園 分布上의 問題」에서 다루는 本道 人口數 및 才別 人口數의 資料는 1979年 10月 1日 基準의 常住人口調査 資料를 利用했다. 그 理由는 1980年의 人口資料는 全國 센서스 資料가 아직 發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本道の 西歸邑은 本研究 推進中에 市로 昇格되었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계속 西歸邑으로 처리했다.

## II 本道 幼稚園 教育의 概要

### 1. 濟州道 幼稚園 教育의 發展過程

우리나라의 最初의 幼稚園은 1914年 梨花學堂 創設者인 Scranton 婦人에 의하여 設立되었으며<sup>4)</sup> 最初의 婦人病院인 교구어관 자리에서 16名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된 幼稚園은 처음에는 認識不足으로 많은 非難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幼稚園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싹트기 始作했는데 그것은 幼稚園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行動이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좋은 變化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幼稚園에 대한 非難이 사라지면서 幼稚園 教育이 점차 普及되기 시작했다.

1915년에는 梨花學堂에 二年制 幼稚園範科를 두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는 유가강씨에 의한 安國 幼稚園, 이준산씨에 의한 龍山 幼稚園, 캄산어사에 의한 培花 幼稚園등이 있었고, 1918년에는 仁寺洞에 中央敎育 附屬幼稚園이 設立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차츰 敎育前 敎育이 幼稚園을 통해 普及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地方에는 경기도 仁川市에 英華 幼稚園이 1917년에 設立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全羅南道 順天市에 中央 幼稚園이 세워졌다. 1919년에는 江原道 鎭平군에 화성 幼稚園, 경상남도, 마산시에 의신 유치원, 1920년에는 충청남도 홍성에 홍성 幼稚園과 全羅南道 光州에 中央 幼稚園이 設立되었다. 다음해인 1921년에는 江原道 鎭平군에 신성 幼稚園, 1922년에는 충청북도 제천에 제천 幼稚園이 세워졌고, 1923년에는 강원도 강릉군에 금진 幼稚園이 設立되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제주도 제주시에 中央 幼稚園이 세워졌다. 이렇게하여 1945年 解放이 될 때까지 南韓에는 39個所의 幼稚園이 세워졌다.

本道 幼稚園의 嚆矢는 1924年 4月 13일에 開設을 본 「濟州 私立 中央 幼稚園」이다.<sup>5)</sup> 그런

4) 以下는 李鍾昇 外 1인, 상계서, pp. 11~12, 와 김광웅 外 4인, 상계서, p. 10을 참조

5) 제주도 교육위원회 (편), 제주교육사,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9, p. 190~202, 참조

데 이보다 앞서 1909年 10월에 開校되었던 「濟州 農林 女學校」에는 當時 初級班(幼稚園)과 普通班(初等課程)이 設置된 바 있으나 開校 7年後 閉校로 因하여 持續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正規的인 最初의 幼稚園은 1924年 「濟州 私立 中央 幼稚園」이다. 그 後 다시 13年 이 經過된 1937년에는 南濟州 大靜邑 下藪里에 「모슬포 幼稚園」이 設立되었다. 이들 2個所의 幼稚園은 日帝下의 迫害와 彈壓 속에서 순수한 幼兒教育 專門教育機關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해 왔다.

1945年 解放以後 道民의 教育熱은 많은 국민학교와 中學校 設置의 原動力이 되었다. 特히 6.25동란 때 本道에 避難 해온 難民들이 道처에 定着하면서 基督教의 宣敎와 敎會設立이 확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濟州市에 所在한 敎會에서는 附設 幼稚園의 開設이 활발해졌으니, 敎會가 本道 幼稚園 教育의 發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1950年 末에 는 私立 幼稚園 4個所가 增設되었으며, 1960年代 末에는 2個所가 增加되고, 1970年代에 또 4個所가 增設을 보이며, 1979年 3月까지 道內에는 總 12個所의 幼稚園이 設置되었다. 또한 本道 最初의 公立 幼稚園은 1979年 3月 北濟州郡 翰林邑 翰林國民學校에 併設된 「翰林國民學校 併設 幼稚園」이며 이를 필두로 1981年까지 道內 公立 幼稚園 總數는 34個所로 增加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 2. 本道 幼稚園의 概況

### 1) 幼稚園數, 園兒數, 敎員數

本道 幼稚園數, 園兒數, 敎員數 및 學級數의 現況을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유 치 원 개 황<sup>6)</sup>

지역	구분	설립 별	유치원	학급수	원 이 수			교 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계		51	69	2,571		1,120	77		57
	공		34	35	1,337		595	8		8
	사		17	34	1,234		525	69		69
제주시	계		10	26	956		401	46		35
	공				-			-		-
	사		10	26	956		401	46		35
북제주군	계		19	20	734		323	7		6
	공		18	19	697		303	5		5
	사		1	1	37		20	2		1
남제주군	계		22	23	881		396	24		16
	공		16	16	640		292	3		3
	사		6	7	241		104	21		13

6)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주교육통계연보, 1981. p.60 참조

## 가. 幼稚園數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木道 幼稚園 總數는 51個園으로서 公立이 34, 私立이 17個所이다. 이 중에 公立은 모두 國民학교 併設로서 幼稚園 專任敎師를 둔 전임유치원(7個所: 翰林, 金寧, 威德, 舊左中央, 孝敦, 爲美, 表善)과 國校敎師가 幼稚園을 겸임하는 27個所의 겸임幼稚園으로 나눈다. 이들은 大部分 1學級 規模로서 79년에 1個所, 80년에 2個所, 81년에 31個所가 設立되었다.

이들 公立 幼稚園外的 私立 幼稚園은 濟州市가 10個所, 기타지역에 7個所가 있다. 이들 私立 幼稚園은 濟州市와 西歸浦를 中心한 南濟州 地域에 偏중되어 있다.

本道內 幼稚園은 總 51個園에 69學級<sup>7)</sup>으로 編成되어 있어 幼稚園當 平均學級數는 1.3學級이며 公立은 34個園에 35學級이며 私立은 17個園에 34學級이 編成되어 私立의 平均學級數는 2學級이다.

## 나. 園兒數

木道 園兒數는 總 2,571名으로서 이를 81학년도 道內 國民學校 1학년 學生數 11,838名과 比較해보면 21.7%에 해당된다. 이는 73년도의 全國水準의 幼稚園 就學率 23%<sup>8)</sup>에 비슷한 比率이다.

幼稚園 園兒의 男女比率은 56.5 : 43.5 이며 50.7 : 49.3의 道內 國民學校의 男女比와 比較해보면 큰 差異가 없는 水準이다.

園兒들의 地域別 分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畝面單位의 兒童들은 幼稚園 就學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公立 幼稚園의 增設로 이들에게 가지도 幼稚園 취학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 다. 敎員數

總 34個所 公立 幼稚園의 園長은 당해 國民학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敎師에 있어서는 7개소 전임 幼稚園에 8名의 專任敎師가 配置되어 있고 나머지 27개소 幼稚園은 國民학교 敎사가 幼稚園을 담당하는 겸임敎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公立 幼稚園에서 學級當 敎師數는 1名으로 總 35學級에 35名의 敎師가 幼稚園 敎育에 임하고 있다.

總 17개소 사립 幼稚園에는 17名의 園長과 10名의 園監을 두고 있으며 41.2%의 幼稚園이 園監을 공식으로 두고 있는 셈이다.

사립 유치원의 總學級數 34學級에 42名이 敎師가 在職하고 있으니 學級當 平均 敎師數는 1.2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7) 認可學級數는 70學級임

8) 김광웅 의 4면, 전계서, p. 4



원장과 원감을 합친 학급당 敎員數로 계산하면 학급당 평균 2명의 敎員을 두고 있는 셈이다.

### Ⅲ 本道 幼稚園 教育의 現況: 調查結果 및 解釋

#### 1. 幼稚園 教育의 內的 要素

여기서는 本道 幼稚園 教育의 樣狀을 決定하는 變因으로서 敎育課程運營, 敎師, 兒童에 대해서 다룬다.

##### 1) 敎育課程 運營

本節에서는 敎育法에 나타난 幼稚園 敎育目的에 대한 敎師들의 理解度, 幼稚園 敎育의 性格이나 方向에 대한 敎師들의 見解, 敎育課程 運營計劃 狀況, 敎育活動 狀況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가. 幼稚園 敎育目的 및 性格에 대한 理解

우리나라 敎育法 第146條 및 第147條에는 幼稚園 敎育의 目的 및 目標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敎育法上의 敎育目的 및 目標에 對한 理解度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 3> 과 같다.

<表 3> 敎師의 幼稚園 敎育目的의 理解度

內 容	%		
	公 立	私 立	計
① 그 內容을 잘 알고 있다	60.9	84.2	71.4
② 그 內容을 약간 알고 있다	34.8	15.8	26.2
③ 읽어 보았으나 記憶이 잘 안된다	4.3	.	2.4
④ 한번도 읽어 본 지이 없다	.	.	.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應答者의 71.4%가 그 內容을 잘 알고 있다고 反應하고 있다. 公, 私立 敎師間의 差異를 보면 私立 幼稚園 敎師는 84.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私立 幼稚園 敎師의 幼稚園 敎育目的의 認識度가 公立 幼稚園 敎師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公立 幼稚園 敎師의 경우는 元來 國民學校 敎師로서 幼稚園 敎師는 感적인데다가 幼稚園 敎育經歷이 1년 미만이어서 幼稚園 敎育目的의 認識度가 낮은 것으로 推論된다. 그러나 多幸스러운 것은 幼稚園 敎育目的의 理解에 無關心한 敎師가 全體의 2.4%, 公立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敎育目的의 認識은 敎育活動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本道 幼稚園 敎師들의 높은 敎育目的

認識度는 本道 幼稚園 教育의 發展을 爲해서 긍정적 傾向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幼稚園 教育活動의 基本方向에 對한 教師들의 回答한 反應을 보면 <表 4>와 같 이 重要度の 순서로 지적한 첫째가 원만한 社會生活을 營위할 수 있는 性格을 形成해 주는 데 있고 둘째가 集團生活을 통해 責任感, 協同心, 自立心 등을 길러 주는 데 있으며 셋째가 日常生活의 좋은 習慣을 길러 주는 데 있고 넷째가 園兒들의 知的 發達을 促進시키는데 있다는 순 서였다.

즉 本道 幼稚園 教師들이 생각하는 바람직 한 幼稚園 教育의 目標은 대체로 어린이들의 社會的, 情意的 發達을 促進시켜서 원만한 社會生活을 營위해 나갈 수 있는 習慣과 性格을 形成시켜 주는 데 두고 있다.

<表 4> 幼稚園 教育의 基本方向에 對한 教師의 認識

內	容	순  서		
		공  립	사  립	계
①	集團生活을   통해  責任感,  協同心,  自立心  등을  길러  주는  데  있다	2	2	2
②	日常生活의  좋은  習慣을  길러  주는  데  있다	3	3	3
③	藝能의  才能의  早期發見과  伸張에  있다	5	5	5
④	園兒들의  知的  發達을  促進시키는데  있다	4	4	4
⑤	원만한  社會  생활을  營위할  수  있는  性格을  形成해  주는  데  있다	1	1	1
⑥	身體發育의  促進에  있다	6	6	6

그러나 幼稚園 教育의 性格 또는 目標 認識에 있어서 어린이의 知的 發達 促進에 관한 關 心이 不足한 것은 심각한 問題點이라고 생각된다. 先進 各國에서 幼兒教育에 힘을 쓰는 큰 理由중의 하나는 어린이의 知的 能力을 早期에 開發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幼稚園 教育에서 知的 發達에 對한 關心의 결어는 過大 幼稚園 教育이 한글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셈하기에 주력하여 幼稚園을 나온 어린이들이 국민학교 입학년에 들어가서 學習興味 를 잃고 소위 問題兒童이 되는 事例가 종종 지적된 나머지 이에 對한 지나친 방어태세가 이러 한 結果를 낳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知的 發達을 위한 學習이 읽기, 쓰기, 셈하기를 通 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幼稚園 教育의 性格이나 目標에서 知的 發達의 促 進에 對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겠다.

一般의 으로 幼稚園 教育의 부진원인으로서 幼稚園 教育에 對한 認識不足을 들고 있으며 그의 한 例가 「幼稚園」 이나 「어린이 집」 이 같은 性格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특 히 農촌에서는 이러한 傾向이 심한 것 같다. 이러한 傾向은 一般社會의 幼稚園 教育에 對한 認識 不足에 起因하거나, 幼稚園 教育 自體의 內的 要因에 起因할 수도 있겠다. 幼稚園 教育 의 성격을 명확히 찾는다는 觀點에서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의 差異에 對한 교사들의 見解

는 다음 <表 5> 와 같다.

<表 5> 教師들의 「어린이집」과 幼稚園 教育의 差異에 대한 認識

내 용	%		
	공 립	사 립	계
① 아주 같다	5.0	.	2.0
② 다소 같다	10.0	22.6	17.6
③ 약간 다르다	20.0	38.7	31.4
④ 아주 다르다	65.0	38.7	49.0

大部分의 교사들이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을 差異있게 보고 있다. 差異 있게 보는 교사가 全體의 80.4%, 아주 差異있게 보는 교사가 全體의 49.0%로 나타나고 있다. 公立 幼稚園 교사들이 私立 幼稚園 교사들에 비해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의 差異를 높게 知覺하고 있으며 그 比率은 私立이 38.7%에 비해 公立이 65.0%로 나타나고 있다. 全體의 17.6%, 私立의 22.6% 教師들이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이 다소 같은 性格으로 理解하고 있다.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을 差異있게 보는 教師들이 「어린이 집」과 幼稚園 教育을 差異있게 認識하는 理由로 첫째가 어린이 집 教育目的은 「保護」에 있고 幼稚園 教育目的은 「教育」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는 基本的 性格에 差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理由로는 幼稚園 教育은 「專門職」이고 어린이 집 教育은 아무나 맡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現實의 狀況의 條件에 의해 그 差異를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 나. 教育課程 運營計劃

##### (1) 教育計劃案 作成 狀況

道內 大部分의 幼稚園은 教育計劃案을 마련하여 園兒들을 指導하고 있다. 各 幼稚園의 教育課程 運營計劃 作成 狀況을 살펴 보면, 年間 幼稚園 運營(經營)計劃案을 가지고 있는 幼稚園이 全體의 77.8%, 教育課程 年間運營計劃案을 가지고 있는 幼稚園이 全體의 85.2%, 教育課程 月間運營計劃은 全體의 81.5%, 週間 教育計劃案은 全體의 77.8%, 1日 教育計劃案을 준비하고 있는 幼稚園이 全體의 88.9%로 나타나고 있다. 實際 年間 教育課程運營計劃의 一例 <表 6>을 소개한다.

教育課程 運營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 있어서 參考資料의 利用 狀況을 살펴보면 <表 7>과 같이 全體의 68.3%가 一次的으로 文敎部의 幼稚園 教育課程을 參考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各種 敎師用 指導資料를 參考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教育課程 運營計劃 過程의 一次的 參考 資料가 文敎部의 教育課程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文敎部 教育課程 精神이 幼稚園 教育 實際에 잘 反映된다고 解釋이 된다면, 私立 幼稚園

<表 6> 연 간 교 육 과 정 운 영 계 획

월	일 (간) 단 원 (대 단 원)	주 (간) 단 원 (소 단 원)			
		1 주	2 주	3 주	4 주
3 월	유치원과 우리 집	즐거운 유치원	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우리 집	
4 월	봄동산과 자연	봄철과 식목일	곤 충	공원과 가로수	봄소풍
5 월	나의 몸과 자연	나의 몸	집짐승	새들의 생활	들 짐승
6 월	생산과 소비	공 장	시 장	산과 바다	물
7 월	즐거운 여름	여름철의 자연	여름위생과 전염병	즐거운 여름방학	
9 월	교통과 통신	자동차	기 차	배 비행기	우리나라 좋은나라
10월	우리를 도와 주는 기관들	우체국	소방서	병원	경찰서
11월	겨울준비	계절의 변화 오곡의 결실	우리 몸의 영향소	겨울준비(Ⅰ)	겨울 준비(Ⅱ)
12월	성탄절과 겨울방학	동 징	저축 은행	성탄절과 겨울방학	
2 월	위인과 졸업	풍속과 위인	졸업과 입학		

※ 제주시내 J유치원의 계획임

因 教師의 50%가 一次的 資料로 文敎部 敎育課程을 參考하는데 比해 公立 幼稚園은 82.6%의 教師가 文敎部 敎育課程을 一次的으로 參考하고 있어 그만큼 公立 幼稚園에서 文敎部 敎育課程 精神이 잘 反映되고 있다고 하겠다.

<表 7> 敎育課程 運營計劃 樹立의 參考資料

內	%	%		
		公 立	私 立	計
① 文敎部の 幼稚園 敎育課程	82.6	50.0	68.3	
② 各種 教師用 指導資料	13.0	44.4	26.8	
③ 선배교사 또는 자년의 지도경험	4.3	5.6	4.9	
④ 幼稚園 獨自的 計劃	.	.	.	

다. 教師用 指導 資料

幼稚園 敎育活動의 指導實際에 있어서는 單元을 設定하고, 主題를 定하고 그에 따른 指導 目標 및 內容을 선정하는 過程이 뒤따른다. 이러한 일련의 過程에서 一線 教師들에게 強力한 參考資料가 되는 것은 幼稚園 敎育課程에 근거하여 마련된 教師用 指針書나 教師用 指導資料가 될 것이다. 그러나 本道 幼稚園 教師들의 教師用 指導資料의 利用率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元的 主題, 目標, 指導內容 선정의 過程이나 方法에 있어서 各種 教師用 指導資料를 參考하여 決定하는 비율은 全體의 12.2%에 불과 하고 大部分(全體의 63.4%)이 文敎部の 「幼稚園 敎育課程」의 目標와 指導內容을 直接

<表 8> 單元의 主題, 目標, 指導內容 선정의 過程, 方法

內 容	%		
	公 立	私 立	計
① 各種 指導 資料를 參考하여 그 內容中에  적당한  것을  고른다	13.0	11.1	12.2
② 行事나 季節別 特色을  삽입하여 幼稚園 獨自의  으로  構成한다	8.7	44.4	24.4
③ 文敎部의 「幼稚園 教育課程」의 目標와 指導內容을 分析하여 決定한다	78.3	44.4	63.4

參考하고 있다고 反應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一般的인 敎師用 指導資料가 一線 敎師의 期待要求에 直接的으로 充分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起因하지 않나 思料된다. 따라서 現在 나와 있는 敎師用 指針書들이 갖고 있는 缺點을 물었더니 다음 <表 9>의 같이 反應하고 있다.

<表 9> 一般的인 敎師用 指導資料의 缺點

內 容	%		
	公 立	私 立	計
① 文敎部 「幼稚園教育課程」의 目標와 指導內容과의  체계적인   연계성이  不足하다	26.1	52.9	37.5
② 그 內容 構成의 用語나 活動들이  兒童들의  發達段階의  水準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水準이  너무  높다)	43.5	11.8	30.0
③ 「어린이집」의  保育活動 內容과 重複되고  있다 (水準이  낮다)		11.8	5.0
④ 各各의  指導資料가  가지고  있는  特色이  있을  뿐  結晶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0.4	23.5	27.5

敎師用 指針書들의 一般的인 缺點들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은 文敎部의 「幼稚園 教育課程」의 目標와 指導內容과의 體系的인 연계성의 不足을 들고 있으며 둘째로 그 內容構成의 用語나 活動들이 兒童들의 發達段階의 水準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 敎師들은 文敎部 教育課程에 근거하여 教育活動內容, 指導方法, 教育評價等이 좀 더 체계화된 敎師用 指針書를 願하고 있다. 全體 敎師의 97.5%가 이의 必要性을 지적하고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가 全體의 35.0%, 꼭 필요하다가 全體의 62.5%에 이르고 있다. 現在 本道 幼稚園 敎師들이 가장 많이 參考하고 있는 文獻이나 參考資料의 순서는 첫째가 文敎部, 유아교육 資料集 (1981)이고 둘째가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幼稚園에서 발간한 幼稚園 敎育과정의 운영 (1977)이고 개인제 순서가 임복희, 幼稚園 생활교육안과 윤순애, 보육의 이론과 실제 (보육사, 1980)등이다. 文敎部에서 많은 자료들이 일선에 보급되고 있으나 實際 일선 敎師들의 이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反應하고 있다.

라. 教育活動 狀況

(1) 편제 및 時間

文敎部「幼稚園 教育課程」에 規定된 편제와 教育日數 및 時間은 다음과 같다.<sup>9)</sup> “幼兒는 身體的, 情緒的 知的 未分化 狀態에 있으며 그들의 行動은 全體的이고, 複合的인 기능들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學習活動은 上級學校에서 처럼 敎科別로 細分할 수 없는 特性을 갖는다.

이러한 特性을 고려하여 幼稚園 教育活動은 敎科別 編制를 지양하고, 發達課業을 中心으로 發達領域別로 編成한다. 여기서 發達領域別 編成이란 發達領域別 指導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內容陳述의 便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주요 發達領域은 다음과 같다.

- \* 社會, 情緒 發達領域
- \* 認知 發達領域
- \* 身體發達 및 健康領域

〈教育 日數 및 時間〉

幼稚園 教育計劃은 다음과 같은 教育日數와 時間을 基準으로 하여 樹立하고 實踐한다.

- ① 幼稚園의 年間 教育日數는 200日로 한다.
- ② 幼稚園의 適當 教育時間은 18~24時間으로 한다.
- ③ 幼稚園의 하루 學習時間은 3~4時間으로 한다.

④ 幼稚園의 한 時間의 指導時間은 地域社會의 特性, 幼兒의 發達水準, 기후, 계절, 學習 課題의 特性, 兒童의 興味등을 고려하여 그 實情에 맞도록 調節한다.”

本道 幼稚園은 全部 위의 規定에 의해 發達領域別에 의해 하루 3~4時間 單位의 時間表를 作成하고 있는데 濟州市내 私立 幼稚園의 時間表의 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 간 표 (代表的인 例)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	사회 정서	인지 (자연)	사회 정서	언어	인지 (자연)	사회 정서
2	언어	신체 신장	인지 (가연)	사회 정서	신체 건강	언어
3	신체 건강	사회 정서	신체 건강	신체 건강	사회 정서	신체 신장
4						
5						
6						

〈表 10〉 교 육 내 용

월	화	수	목	금	토
동화	새노래	그림 등	새노래	성경 이야기	슬라이 드
오리	그림	그림	율동	만들기	

그러나 大部分의 幼稚園에서는 時間表와는 별도로 〈表 10〉과 같이 曜日別로 教育內容을

9) 文敎部, 幼稚園教育課程, 文敎部 敎시 제424호, 1979.3.1, p.6

固定시켜 實際 學習活動 計劃, 學習資料 準備등을 이것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時間表는 名目上의 계획에 머무르기 쉽게 되어 있다. 이는 文教部 教育課程의 編制 規定의 애매성에 기거하는 것 같다.

教育法 施行令 第183條에 “幼稚園의 保育科目은 健康, 社會, 自然, 言語 및 藝能으로 한다” 로 規定되어 있으나 文教部 教育課程에는 “教科別 編制를 지양” 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發達課業을 中心으로 發達領域別로 編成한다.” “發達領域別 編成이란 發達領域別 指導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編成과 指導過程에 一貫性 있는 시사를 주지 않고 있어 여기서 부디 一線 幼稚園의 指導의 實際에 있어 時間表가 名目化할 素地가 있다고 推論된다.

따라서 幼稚園 教育活動에 있어서 最小限度 單元의 設定에서 單位 時間 學習活動 展開에 이르는 指導過程이 一貫性 있게 이루어 지도록 指導過程의 體系化가 이루어져야겠다.

(2) 學 習 活 動

하루의 學習活動은 앞 장에서 紹介된 曜日別 教育內容 (例컨데 동화, 오락, 노래, 그림동화, 그림, 율동, 만들기, 성경이야기 (종교계통 幼稚園)슬라이드를 주어진 하루 日課表에 따라 進行되고 있다. 本道 幼稚園의 하루 日課表의 例를 紹介하면 <表 11>과 같다.

<表 11> 본도 유치원의 대표적인 일과표

시 간	활 동 구 분
9 : 30 ~ 9 : 45	- 정리정돈 및 체조
9 : 45 ~ 10 : 15	-- 생활교육 및 제1교시
10 : 15 ~ 10 : 30	- 자유놀이
10 : 30 ~ 11 : 15	- 제2교시
11 : 15 ~ 11 : 30	- 용변 및 휴식
11 : 30 ~ 12 : 10	- 제3교시
12 : 10 ~ 12 : 20	- 평가 및 공지사항

幼稚園 教育活動을 이렇게 정규 일과표를 全體 兒童들에 一律적으로 實施할 때 兒童 個個人의 興味와 必要를 어떻게 教育的으로 수렴하느냐는 指導過程에서의 하나의 큰 宿題라 하겠다. 따라서 하루의 日課中 「自由時間」 以外的 正規 일과표에 의하여 學習活動을 展開할때, 例컨데 그림 그리기 時間에 그리기를 싫어하는 兒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質問에 全體의 55%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私立 幼稚園 教師의 40.9%가 여지로 兒童을 學習에 參與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教師들에게 그 理由를 물은 즉 이들 教師의 55.6%가 “多様하게 個別 學習을 시

&lt;表 12&gt;

## 一齊學習의 盛行興否

내 용	%		
	공 립	사 립	진 체
① 억지로 시킨다	11.1	40.9	27.5
② 그냥 놔 둔다	11.1	4.5	7.5
③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	77.8	36.4	55.0
④ 기 타		18.2	10.0

킬 수 있는 施設이 未備하기 때문에” 라는 理由를 들고 있으며 둘째로 이들 教師의 22.2%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團體生活에 적응하는 것도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理由를 들고 있다.

幼稚園의 學習活動은 園兒들이 하고 싶은 活動을 할 수 있도록 多樣的 學習形態를 취하는 것이 理想的이겠으나 教育施設, 設備의 未備로 인해 一齊學習이 盛行되고 있음이 하나의 問題點이다. 따라서 各 幼稚園은 園兒들이 個人別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인정든지 할 수 있는 充分的 施設과 設備를 갖추는 일이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 2) 教 師

本節에서는 幼稚園 教師들의 資格이나 經歷 등 一般的 特性과, 근무만족도, 근무조건, 自身의 資質에 대한 教師들의 知覺등을 다룬다.

가. 教師들의 一般的 特性

(1) 資格: 本道內 總 17個所 私立 幼稚園의 園長 中에 1名만이 資格證을 所持하고 있으며 이들 園長들의 主要 경력은 70%가 종교계 출신이다.

10名의 園監中에서 원감 자격증 소지자는 1名,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名으로 教師 以上의 資格證 所持者가 40%에 머무르고 있다.

42名의 私立 幼稚園 教師 中에서 教師 資格證 33名, 準教師 資格證 1名으로 有資格者 比率는 80.95%에 이르고 있다.

(2) 教師의 經歷年數: 本 研究調査에 나타난 教師의 經歷年數 分布를 보면 公立 幼稚園 教師들은 公立 幼稚園이 금년에 발족 되었기 때문에 모두 1年未滿이고 私立 幼稚園 教師는 1年 미만이 36.4%, 2年 경력의 교사가 18.2%, 3~5年이 27.3%, 5~10年이 22.7, 10年 以上이 9.1%이다.

나. 教師들의 現職에서의 問題

教師들은 스스로의 職業을 大部分 보람 있는 職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봉급수준이 낮다든가, 教師들의 人格이 무시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애기 보람을 찾으려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表 13> 教師들의 유치원 교직 만족도

내 용	%		
	공 립	사 립	계
① 아주 만족	9.5	61.2	33.3
② 약간 만족	4.8	33.2	17.9
③ 보 통	19.0	5.6	12.8
④ 약간 불만	28.6	.	15.4
⑤ 아주 불만	38.1	.	20.5

全體教師의 50.2% 教師가 幼稚園 教育에 종사하는데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 35.9%의 교사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만을 느끼는 教師의 比率은 公立 教師들의 66.7%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높은 반응비율에 起因된 것이고 私立 幼稚園 教師들의 94.4%가 만족을 나타내고 있어 私立 幼稚園 教師들의 幼稚園 教師로서의 긍지는 높게 自覺하고 있는 것으로 推論되어 本道 幼稚園 教育發展을 위한 밝은 展望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反面에 公立 幼稚園 教師들의 66.7%라 높은 비율이 幼稚園 教師로서의 긍지와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현지 국민학교 교사로서 「김직」하고 있다는 事實이 主要原因으로 推論된다.

幼稚園 教育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찾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것에 대한 質問에 대한 반응은 <表 14>에 나타난 비와 같이 公, 私立別로 약간 差異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 14> 유치원 교육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찾는데 장애요소

내 용	%		
	공 립	사 립	전 체
① 봉급수준이 너무 낮다	.	30.0	16.7
② 개인의 발전성이 없다	37.5	20	27.8
③ 일의 보람이 없다	.	.	.
④ 교사들의 인격의 무시되고 있다	37.5	40	38.9
⑤ 일반사회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	25.0	10	16.7

私立 幼稚園 教師들이 “教師들의 人格이 무시되고 있음” 과 “봉급수준이 너무 낮음” 을 그 理由로 들고 있음에 비해 公立 教師들은 “人格의 무시” 와 “개인의 發展성이 없음” 을 그 理由로 들고 있다.

어쨌든 “人格의 무시” “發展성의 건이”, “봉급수준이 낮음” 등의 理由들은 幼稚園 教師들이 아직도 專門職者로서의 인칭과 그에 따른 충분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敎職의 滿足度에는 職務의 內容과도 밀접한 關係를 맺은 것이다. 幼稚園 教師들의 하루 11 課中 學習指導(正規時間表에 의한) 外에 時間을 많이 소모하는 일과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다음 <表 15>와 같다.

<表 15> 學習指導 以外的 日課中 時間을 많이 소모하는 일과 어렵게 느껴지는 일 <단위: %>

내	용	시간이 많이 드는 일			어려운 일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①	교재연구	14.3	11.7	13.2	4.5	28.6	13.9
②	학습자료 준비	33.3	17.6	26.3	22.7		13.9
③	학습자료 제작	33.3	35.3	34.2	59.1	7.1	38.9
④	학부모 면담	.	.	.	4.5	14.3	8.3
⑤	가정통신 작성	.	.	.	.	7.1	2.8
⑥	환경구성	14.3	29.4	21.1	4.5	7.1	5.6
⑦	행정사무	4.8	5.9	5.3	4.5	35.7	16.7

時間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일로서 公, 私立 教師 다 같이 “학습자료 제작” 을 들고 있다. 그 다음이 公立에서는 “학습자료 준비” 이고, 사립에서는 “환경구성” 으로 나타났다.

公, 私立 共히 “학습자료 제작” 이 순위 제1로 반응한 것은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료를 교사들이 직접 제작해 써야 하게끔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幼稚園 教育에 必要한 學習資料가 多樣하게 開發되어 있지 못한데 있다고 하겠다.

어려운 일의 차례에 있어서도 公立은 이치히 “학습자료 제작” 을 제1순위로 반응하고 있다 私立에 있어서는 행정사무, 교재연구를 어려운 일의 1.2순위로 지적하고 있는데 行政事務는 주로 원감이 해결하고, 또 指導해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원감이 空席으로 (41.18%) 運營되고 있는 幼稚園이 많은 그 原因이 하나가 아닌가 思料되며 따라서 行政事務의 처리는 幼稚園 教師들에게 雜務로서의 부담을 그만큼 加重시키는 結果가 된다.

職務에 대한 滿足度는 職務遂行의 원활성, 流暢性에도 밀접히 관계하며 직무수행의 유창성은 教師들의 그 직무에 관련된 능력 또는 資質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敎職의 主要 職務인 學習指導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領域과 內容을 알아 본 結果는 <表 16> 과 <表 17> 과 같다.

<表 16> 教師들의 학습지도에 自信 있는 領域

內	容	%		
		公 立	私 立	計
①	言語發達	17.4	22.2	33.3
②	社會·情緒發達	69.6	44.4	58.5
③	身體健康	4.3	16.7	9.8
④	認知發達	9.7	16.7	12.1

教師들이 學習指導에 自信있는 領域으로 반응한 순서는 公, 私立 共히 社會·情緒發達 言語發達, 認知發達, 身體 健康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7> 교사들의 자신 있는 활동 내용

내	용	%		
		공	사	세
① 언어지도		·	25.0	10.8
② 음악지도		9.5	12.5	10.8
③ 율동(무용)지도		38.1	18.7	29.7
④ 그리기 지도		4.8	6.2	5.4
⑤ 자유놀이 지도		4.8	·	2.7
⑥ 사회성 발달지도		9.5	6.2	8.1
⑦ 동화지도		29.6	18.7	24.3
⑧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4.8	12.5	8.1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활동 내용별로 반응한 것을 보면 가장 자신있는 것으로 율동(무용) 지도를 들고 있는데 이는 道內 幼稚園 교사가 거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으로 동화지도, 언어지도, 음악지도의 순서로 반응된 것을 보면 道內 幼稚園教育 活動 內容에 있어서는 율동, 동화, 언어, 음악지도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음을 推論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道內 幼稚園 教育에서 自然生活 指導나 공작지도등은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아 동

본연구에서는 本道 幼稚園 兒童에 대한 行動特性을 客觀的인 道具에 의해 記述하지 못했으며 다만 幼稚園 敎師나 學父母의 知覺에 의한 幼稚園 入學 前後의 兒童의 行動特性만을 다룬다.

敎師들에게 “大都市(서울, 釜山등)에 비해 본도 幼稚園 園兒들이 어떤 면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質問에 대한 대답은 <表 18> 과 같이

<表 18> 本道 園兒들이 대도시 원아들에 비해 뒤떨어진 점

내	용	%		
		공	사	계
① 지적발달		19.0	17.6	18.4
② 정서발달		23.8	23.6	23.7
③ 사회성발달		·	5.9	2.6
④ 신체발육 및 건강			·	
⑤ 언어발달		52.4	52.9	52.6
⑥ 예능적 소질		4.8	·	·

全體의 52.6%가 언어발달, 그 다음이 정서발달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學父母들에게 子女들이 幼稚園 入學後 달라진 점에 대한 반응은 <表 19>와 같이

<表 19> 유치원 입학후의 행동변화

내	용	%	내	용	%
①	말을 더 잘 한다	24.5	⑥	남과 잘 어울린다	19.4
②	특기가 생겼다	11.6	⑦	자립심이 생긴 것 같다	3.7
③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12.0	⑧	진강이 좋아졌다	.
④	글을 읽고 쓸 줄 알게되었다	9.7	⑨	명랑해졌다	6.0
⑤	일반적인 생활습관이 나아졌다	18.0			

全體의 24.5%가 “말을 더 잘 한다”에 반응하여 言語發達이 促進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남과 잘 어울린다”에 반응하여 사회성이 발달하였음을, 그 다음이 “일반적인 생활습관이 나아졌다”에 반응하여 생활습관이 향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反對로 幼稚園에 入學한 後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形成 여부를 물었더니 그 반응은 <表 20>과 같이

<表 20> 유치원 입학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형성

내	용	%	내	용	%
①	지나친 경쟁심이 생겼다	14.8	⑥	성격이 우울해졌다	2.1
②	남의 관심을 지나치게 기대한다	18.0	⑦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버릇이 생겼다	35.7
③	필요없는 우월감이 생겼다	11.7	⑧	진보다 어리광을 더부린다	9.2
④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나빠졌다	2.5			
⑤	몸이 더 약해졌다	6.0			

全體의 35.7%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버릇이 생겼다”에 반응함으로써 教育的인 否定的 行動特性이 比重있게 지적되지 않은 점은 幼稚園 教育의 肯定的인 效果의 측면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하겠다.

## 2. 幼稚園 教育의 外的要因

이기는는 幼稚園 教育의 外的 要素로서 行政支援體制를 中心으로 한 獎學指導, 研修, 再教育, 財政, 學父母의 태도등을 다룬다.

### 1) 行政支援體制

本節에서는 幼稚園 教育의 不振原因, 教師가 要求하는 복지후생대책, 근무조건 및 분위기,

獎學指導, 研修·再教育 狀況, 財政 등의 問題를 다룬다.

가. 幼稚園 教育의 不振原因

幼稚園 教育의 발전을 위해서는 幼稚園 教育의 性格이나 目標을 分明히 認識하고 그에 따라 教育課程 運營은 체계화, 合理化, 効率化 시키는 일 즉 幼稚園 教育의 內的 効率化를 기하는 일이 重要하다. 그러나 이들은 幼稚園 教育의 外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담히 影響을 받고 壓力을 받게 마련이다. 例컨데 一般社會 즉 學父母들의 幼稚園에 대한 期待 또는 認識, 關係行政當局의 行政的인 支援체제, 또 국가적 수준에서의 幼稚園 教育 육성책 등이다.

一線 教師들이 認識하고 있는 이런 外的인 要因으로서 幼稚園 教育의 不振原因에 대한 反應은 다음 <表 21> 과 같다.

<表 21> 유치원 教育의 不振原因에 대한 敎師의 인식

內 容	%		
	公 立	私 立	計
① 유치원에 꼭 보내야 하겠다는 유치원 敎育의 必要性에 대한 弘報活動의 미약	25.0	22.2	23.7
② 國民學校 敎師가  겸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유치원 敎育의 專門性 認定의 결핍	55.0	33.3	44.7
③ 유치원 敎育 育成策의 미약	20.0	44.4	31.6

敎師들이 幼稚園 教育不振原因으로 들고 있는 첫째가 幼稚園 敎育을 국민학교 敎師가 겸직하게 하는 것과 같이 幼稚園 敎育의 專門性 認定의 결핍을 들고 있다. 私立 幼稚園 敎師의 33.3%라는 反應率도 높지만 55.0%의 公立 幼稚園 敎師들의 反應은 直接 겸직의 當事者들로서 幼稚園 敎育의 專門性의 必要에 대한 自覺의 結果라 思料된다.

幼稚園 教育 不振原因에 대한 두번째의 지적은 “幼稚園 敎育 育成策의 미약”을 지적하고 있다. 敎師들과의 面談에서 지적되고 있는 內容들로서는 收容能力의 확장 (幼稚園 新設 및 學級增設), 幼稚園 設置의 地域的 均衡,<sup>10)</sup> 最小限 국민학교 水準의 공급체계의 현실화, 의료 보험 혜택등과 같은 敎師들의 복지, 후생대책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幼稚園 敎育의 性格이나 必要性에 대한 弘報活動의 미약”이다. 學父母 面談이나 一線 敎師들의 面談을 통해 보면, 一般 社會, 學父母들의 幼稚園 敎育에 대한 認識 不足이 幼稚園 敎育의 큰 장애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이기이나 幼稚園 이 같은 것이라든지, 幼稚園에 보내면 국민학교에 가서 손해라든지, 幼稚園에 보내도 돈만 많이 들지 나아지는 것이 없다든지 하는 것이 幼稚園에 대한 인식이 갈 안 된 學부모들의 反應이었다.

10) 本 問題는 본연구 Ⅱ - 3-4) - 나 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나. 教師들의 근무 조건

私立 幼稚園 教師들이 自身들의 복지후생대체의 구체적 내용으로 지적 (요구)하는 事項으로 1순위가 “봉급의 현실화” 그 다음이 “의료보험 혜택” 을 들고 있다.

教師들이 지적하고 있는 봉급의 현실화란 국민학교 교사 수준의 봉급을 의미하며 (응답자의 62.5%) 더 나아가서 호봉제의 엄격한 적용 (37.%)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不滿要因은 職場으로서의 幼稚園에 대한 全體的인 인상과도 관계가 깊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問題의 質問으로서 “선생님이 근무하는 유치원이 마음에 인드는 집은?” 이란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2.9% (공립 100%, 사립 59.1%)가 “教育施設이 빈약하다”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장난감이 빈약하다”에 전체의 14.3%, “원장, 원감의 간섭이 심하다”에 2.9%, 이며 “직원분위가 나쁘다”에는 한사람도 반응하지 않았다.

反對로 “선생님이 근무하는 幼稚園이 마음에 드는 집은?”의 質問에 대한 응답으로서는 “원장, 원감의 간섭이 없어서 자기의 소신을 교육에 편 수 있다”가 전체의 55.2% (공립 71.4%, 사립 40%)이며, 그 다음으로 “직원분위기가 좋다”에 전체의 24.1%, “교육시설이 좋다” “장난감이 풍부하다”에 각각 전체의 10.3%가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으로서 유치원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을 펴고 교육을 전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분위기는 허용되는 것 같고 이에 안타깝게 여기는 장애 요소가 시설부족이나, 장난감 부족으로 그 정도는 심각한 것 같다.

다음으로 근무조건 중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학급규모이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원아수는 적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 여건은 감안하면 대체로 몇명이 적당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質問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理想的인 規模가 아니라 現在 여건은 감안한 교사 1인당 適正 園兒數를 알아 본 結果는 다음 <表 22> 와 같다.

<表 22> 教師1人當 담당할 適正 園兒數

내	용	%		
		공	사	전 체
① 40名		8.7	.	4.8
② 30名		43.5	36.8	40.5
③ 20名		43.5	63.2	52.4
④ 10名		4.3	.	2.4

교사 1인당 適正 원아수로 20명께 반응한 비율이 52.4%, 30명에 40.5%가 반응하고 있다.

현재 학급당 40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는 피제로 본다면 학급당 겨경 교사수는 2명, 아니면 최소한도 1.5명은 配置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公立은 학급당 교사 1인, 사립은 평균 1.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최소한도 수준을 1.5명이라 할 때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다. 獎學指導

교육위원회 또는 시, 군교육청이 1년에 주기적으로 幼稚園을 방문, 장학지도를 펴고 있다. 이 방문장학지도의 현황을 알아 본 결과 장학지도의 횟수<sup>11)</sup>에 있어서 81학년도에 장학지도를 1회 받았다는 교사가 35.4%로 제일 많고, 2회기 22.6%, 3회 이상이 16.1% 한번도 못 받았다는 교사가 25.8%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獎學指導기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전체의 56.4%,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5.4%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 23>

<表 23> 교육청 장학지도의 도움 여부

내 용	%		
	공 립	사 립	계
① 아주 도움이 된다	4.8	27.8	15.4
② 다소 도움이 된다	42.9	38.9	41.0
③ 보통이다	28.6	27.8	28.2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0	5.5	12.8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8	.	2.6

장학지도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문교시책 반영등이 主要 指導 內容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전체 교사의 85.0%가 장학지도에서 교사의 복지후생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園內의 自體 獎學指導 여부 즉 원장이나 원감이 학습지도의 方法이나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教師들을 지도하느냐의 물음에 全體의 48.6% (공립 57.1%, 사립 37.5%)가 “소극적이다”라고 반응하고 있으며, 전체의 40.5% (공립 23.8%, 사립 62.5%)가 적극적으로 指導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公, 私立 園의 差異를 보면 私立에서는 62.5%가 적극적으로 指導한다는 反應에 비해 公立에서는 59.1%가, “소극적이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園內 自體 獎學에 있어서는 公立보다 사립에서가 잘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運營者나 園長이 운영상 미흡한 점이 어떤 것들이냐의 물음에 대한 교사들의 反應은 전체의 45.2%가 “幼稚園 教育에 대한 理解不足”을 들고 있다. 이는 研修, 또는 再教育 對象을 教師에게만 限定할 것이 아니라 園長이나 園監을 對象으로 하는 研修機會도 마련할 必要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結果가 되겠다.

그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全體 教師의 反應比率로는 같은 比率 (전체의 25.8%)을 보여주고 있으나 公立에서는 “學習活動을 위해 必要한 行政의 지원 未洽”을 들고 (38.4%) 있으나 사립에서는 “教師들에게 經濟的 生活保障을 못 해 주는 점”을 들고 (46.1%) 있다.

11) 본 문항은 유치원 대상 조사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할 것을 연구자의 착오로 교사의 반응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치원 별 지도 횟수로 해석이 되지 않음.

### 라. 研修·再教育 狀況

本道에 있어서 研修나 再教育 機會는 극히 制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研修나 再教育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教師는 全體의 44.4% (公立 50.0%, 사립 37.5%)에 이르고 1회에서 2회가 36.1% (공립 40.0%, 사립 31.3%)이며 3회가 13.9%, 4회 이상이 5.6%로 나타나고 있다.

道內 教師들이 再教育, 또는 연수에 참가하는데 어려운 김으로 지적되고 있는 첫째 理由가 “道內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기회가 없다”를 들고 있다 (전체의 58.8%). 두번째 理由가 “주로 道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리부담이 어렵다”를 들고 있다(전체의 35.3%). 사립인 경우에 연수기회의 참여는 全적으로 個人부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而談 過程에서 밝혀졌다.

그외 理由로 “研修內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가가할 理由가 나지 않는다”에는 기우 전체의 5.6% 밖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幼稚園 自體內의 現職研修活動 여부 수 幼稚園 自體內에서 教師들의 示範指導나 개인연구 發表會를 갖느냐의 答에 전체의 69.6%(공립 85.7%, 사립 41.7%)가 “그런 것은 해 본 김이 있다”에 反應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두번 자체연구 發表會나 示範指導會를 갖는다”에 全體의 15.2%(공립 4.8%, 사립 33.3%) “모든 教師가 1년에 1교사 1연구발표나 示範指導를 한다, 즉 1년에 교사수의 1/2 수 만큼 한다”에 全體의 15.2% (공립, 9.5%, 사립 25.0%)가 反應하고 있다.

이는 自體 現職研修 活動이 아주 미약함을 立證하는 것으로 獎學當局이 獎學指導時 이에 特別한 關心이 要請된다.

### 마. 財 政

私立 幼稚園의 경우 園兒들에게서 받는 公納金은 教育委員會가 査定하여 허가하여 주고 있으며 그 內容을 보면, 入學金이 6,210원, 수업료가 月 9,480원, 기성회비기 月 1,040원 인데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分期別로 납부시키고 있다.

私立 幼稚園에 대한 국가보조는 없고 公立 幼稚園에는 教師手當이 月 50,000원, 學級當 운영비가 年 30만원, 재로비가 年 165,000원을 보조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本 연구의 調査員들의 學父母 面談內容의 答은 비율이 幼稚園에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 부담이 간다라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즉 어떤 學父母는 幼稚園에 보내는데 드는 돈은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는데 드는 돈과 맞먹는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幼稚園 當事者들의 反應은 한결 같이 예산이 적다고 한다. 최소한도 어린이의 간식비 정도의 보조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아들은 일찍 집으로 보내야 하고 일부 부모



들은 이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教師들에게 어린이의 간식이 필요하느냐의 設問에 全體의 79.5%가 “필요하다” 에 반응하고 있다.

2) 幼稚園 教育에 對한 父母의 態度

地域別(제주시, 북제주, 남제주)로 同標集(各 150名)한 學父母의 質問紙 應答 狀況은 濟州市 129名, 北濟州 116名, 南濟州 117名, 總 362名의 應答者의 學力別 分布는 大卒이 68名 高卒이 185名, 中卒이 86名, 國卒이 24名이며 生活程度別(上, 中, 下) 分布狀況은 分析 結果 지나치게 편포(생활程度 中에 89.2%) 되어서 本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本 연구에서 狀況變因으로 고려한 地域別, 學歷別 反應 사이의 差異는 的의 있는 差異를 보이지 않아 分析 結果로 제시하지 않았다.

응답한 學父母들이 건에 다른 자녀를 幼稚園에 보낸 경험여부를 알아 보았더니 29.7%가 前에 幼稚園에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한 學父母들이 幼稚園에 보내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教育的 必要에 의해서(자진해서)”가 전체의 8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기가 위해서”가 15.2%, “친지의 권유”가 2.2%, “남들이 보내니까”가 0.8%로 나타나고 있다. 즉 本道의 幼稚園 學父母들은 자녀들을 幼稚園에 보내는 데는 뚜렷한 動機를 가지고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에 보내는데 드는 경비(돈)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니까?의 질문에 대한 反應(<表24>)을 보면,

<表 24> 유치원에 드는 경비 부담에 대한 반응

내	용	%			
		제주시	북제주	남제주	제
① 아주많다		20.9	.	6.4	13.5
② 많다		39.5	6.5	40.4	32.9
③ 보통이다		34.9	36.9	36.2	35.6
④ 적은 편이다		4.7	56.5	17.0	18.0

全體의 46.4%가 유치원에 드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反應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는 60.4%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地方의 公立 幼稚園 보다 私立 幼稚園의 學父母가 經費에 대한 부담을 더 안고 있는 것 같다.

一般的으로 學父母들이 子女들을 幼稚園에 보내는 구체적 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幼稚園에 다니면 어떤 아이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라는 質問에 대해서 <表 25>와 같이

<表 25> 유치원 교육을 통한 자녀에 대한 기대

내 용	%	내 용	%
① 머리가 좋은 아이가 되도록	8.6	⑤ 친구와 원만한 관계	10.0
②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14.5	⑥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8.6
③ 자신의 의사표시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42.7	⑦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	6.4
④ 선량하고 착한 아이	8.6	⑧ 예능에 소질 있는 아이	0.5

“자신의 의사표시를 잘 하는 아이가 되도록”에 가장 높은 反應을 하고 있다. 이는 幼稚園 教育이 講習所와 같이 特定한 재능을 集中的으로 開發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학교 등과 같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發展을 도모하는 正規教育機關으로서의 性格과 機能을 기대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겠다.

3) 非學父母의 幼稚園에 대한 認識

幼稚園에 보낼 나이가 된 子女를 두었으면서도 幼稚園에 보내지 않는 一般父母 (본연구에서 非學父母라 칭함)들을 市, 北, 南郡別로 各 100名씩 300名을 標集해서 270名의 應答을 分析했다.

非學父母들에게 幼稚園에 안 보내는 理由를 물었더니 그 反應은 <表 26>과 같다.

<表 26>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

내 용	%	내 용	%
① 돈이 많이 드니까	21.1	④ 유치원에 보낸다고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18.4
② 어린이 집에 보내니까	20.3	⑤ 기 타	20.3
③ 거리가 멀어서	19.9		

經濟的인 理由로 안 보내는 學父母의 21.1%와 “거리가 멀어서”의 理由 19.9%의 反應을 빼면은 結局 보낼 능력은 있으면서도 幼稚園에 대한 認識不足이 그 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의 理由로는 入學이 定員制로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첨에서 낙방한 學生들이다.

따라서 本道 幼稚園의 發展을 위해서는 幼稚園 教育에 대한 認識을 높이는 일 외에 幼稚園의 地域別 分布를 調整하고 學級數를 늘리어 收容力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생기면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의 質問에 61.5%가 “보낸다”로 38.5%가 “안 보낸다”로 反應하고 있어 幼稚園의 收容能力과 地域別 均衡問題가 本道 幼稚園 教育發展을 위한 一次的 課題라 하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다고 생각합니까?”의 質問에 “거의 같다”가 49.3%, “같다”가

11.8%, “다르다”가 38.9%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幼稚園 教育의 弘報活動 미약에도 起因하고 있겠으나 어린이 집 敎育 活動이 유치원 그것을 많이 모방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推論된다.

다음으로 非學父母가 보는 유치원의 性格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質問에 대한 反應은 <表 27> 과 같다.

<表 27> 비학부모의 유치원 敎育에 대한 인식

내 용	%	내 용	%
① 국민학교 공부를 시켜준다	25.9	④ 성격이 활발해 진다	31.9
② 글공부 (문자 해독)를 시켜준다	12.2	⑤ 노래나 춤등을 주로 배워 준다	23.9
③ 다른 아이들 보다 재롱을 잘 부리게된다	6.1		

첫째가 31.9%로 “성격이 활발해진다”에, 두세째가 “국민학교 공부”와 “노래나 춤” 등의 순서로 反應하고 있다.

### 3. 地域別 幼稚園 分布上의 問題

本節에서는 本道 幼稚園 대상 아동수의 推計를 中心으로 幼稚園 就學率과 本道 地域別 幼稚園 分布狀況, 그에 따른 幼稚園 分布調整 計劃樹立의 基礎資料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 地域別 人口 및 學生人口

本道の 市郡別 人口 및 國民學校와 幼稚園 學生數의 分布 및 地域別 比率은 다음 <表 28> 와 같다.

<表 28> 本道 地域別 人口 및 幼稚園 學生數

	人 口	國 民 學 校		國 校 1 學 年		幼 稚 園	
		學 生 數	인구:학생	學 生 數	인구:학생	園 兒 數	인구:학생
제주도 計	456,988 *	75,233	6:1	11,838	38:1	2,571	177:1
제주시	160,981	27,973	5:1	4,493	35:1	956	168:1
(構成比%)	(35.22)	(37.18)		(37.95)		(37.18)	
북제주군	123,330	18,925	6:1	2,963	41:1	734	168:1
(構成比%)	(26.99)	(25.16)		(25.03)		(28.55)	
남제주군	172,677	28,335	6:1	4,382	39:1	881	196:1
(構成比%)	(37.79)	(37.66)		(37.02)		(34.27)	

\* 제주도청, 79년 10월 1일 기준 상주인구 조사자료

濟州道 總人口 456,988名에 濟州市 人口는 160,981名으로 道의 總人口와의 構成比率은 35.22%이다. 北濟州郡은 人口數가 123,330名에 그 構成比가 26.99%이며 南濟州郡은 人口數가 172,677名으로 그 構成比가 37.79%로 西歸浦市를 包含한 狀態로서는 本道 人口 構成比는 1位이다. 國民學校 學生數의 地域別 分布와 構成比를 살펴 보면 本道 國民학교 學生의 總數는 75,233名<sup>12)</sup>으로서 人口의 比率은 6:1로서 제주도 人口 6사람 中에 1사람이 國民학교 學生이다. 國民학교 學生數의 地域別 構成比率은 人口의 地域別 構成比率과 비슷하게 分布되어 있다.

幼稚園 就園 대상 아동數와 가장 밀접한 關係를 맺게 되는 國民학교 1학년 學生數의 地域別 分布는 人口와 國民학교 學生數의 分布比率과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道內 幼稚園生 總數는 2,571名으로 人口 177名 中에 1사람 比率이다. 이는 國民학교 1학년 學生의 人口와의 比 38:1에 비하면 엄청나게 幼稚園 就園率이 낮음을 概觀할 수 있다. 人口對 學生 比率을 基準으로 幼稚園 就園率을 본다면 相對的으로 西歸浦市를 포함한 南濟州郡이 가장 열세에 놓여 있다.

## 2) 幼稚園 對象兒童數

本道 地域別 幼稚園 對象兒童을 推計하는 때는 可用資料를 감안하면 크게 두가지 接近方法이 가능하다.

첫째는 地域別 才別 人口數를 上臺로 하는 接近

둘째는 某年年度의 전년 國民학교 1학년에 入學예정 대상자의 推定을 上臺로 하는 接近이다.

本 研究에서는 위의 2가지 方法을 다 같이 檢討해본다.

가. 地域別 5才 人口數에 의한 유치원 대상아동數의 推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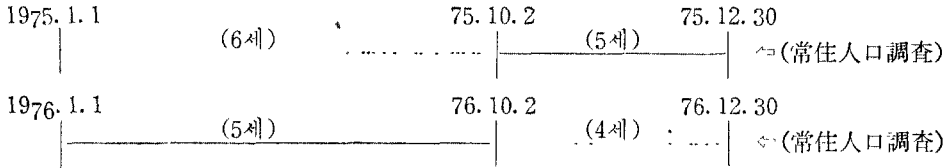
國民學校 就學對象 兒童은 2月 28日 基準으로 만 6세된 兒童이고 幼稚園 對象 兒童은 이 基準에 의해서 만 5세된 아동이 된다. 즉 今年 3月 1日을 基準으로 한다면 來年에 國民學校에 入學할 兒童이 幼稚園 就學對象이 된다. 그러나 本 研究의 可用資料인 地域別 才別 常住人口數는 調查基點이 10月 1日이기 때문에 常住人口의 5세 兒童數와 幼稚園 對象으로서의 5세 兒童數는 차이를 생기며 따라서 幼稚園 對象으로서의 5세 兒童數의 推定이 불기피하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幼稚園 對象 5才 兒童數를 推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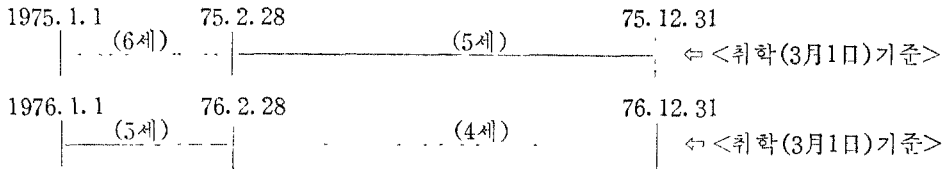
① 81年 10月 1日을 基準으로 본다면 常住人口의 0세 兒童數는 1980年 10月 2日~1981年

12)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주교육통계연보, 1981, p 72 참조

10月 1日 사이에 태어난 兒童이다. 따라서 常住人口 調査에서 5세 兒童은 75年 10月 2日~76年 10月 1日 사이에 出生한 兒童이다.



② 81年 2月 28日을 基準으로 5세아 (유치원 귀학대상)은 1975. 3. 1 ~ 1976. 2. 28일 사이에 出生한 兒童이다.



따라서 이 대상아동 중에 75. 3. 1일에서 75. 10. 1일 사이 (7개월 사이)에 出生한 兒童은 常住人口에서 6세아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는 6세아수 (상주인구조사) ×  $\frac{7}{12}$  이 된다.

또 75. 10. 2~76. 2. 28일 사이 (5개월)에 出生한 兒童은 常住人口 調査에서 5세아에 포함되며 그 수는 5세아수 ×  $\frac{5}{12}$  가 된다. 따라서 幼稚園 就學對象 兒童은 常住人口 調査의 <5세아수 ×  $\frac{5}{12}$  + 6세아수 ×  $\frac{7}{12}$ > 이 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推算한 地域別 유치원 대상 이동수는 다음 <表 29> 와 같다.

<表 29> 地域別 才別 人口에 의한 유치원 就學對象 兒童數

地 域	才 別 人 口		就 園 對 象		計	地 域	才 別 人 口		就 園 對 象		計
	5 세	6 세	5 세	6 세			5 세	6 세	5 세	6 세	
제주도(계)	10,225	10,327	4,260	6,024	10,313	북제주(계)	2,527	2,602	1,053	1,518	2,576
제주시(계)	3,835	3,843	1,598	2,242	3,840	한림읍	524	555	218	323	541
일도동	707	659	295	383	678	애월읍	484	522	201	304	505
이도동	614	644	256	375	631	한경면	331	381	137	222	359
삼도동	556	544	231	317	548	조천면	501	456	208	266	474
용담동	674	679	280	396	676	구좌읍	536	560	223	326	549
건입동	379	351	158	204	362	추자면	151	148	62	86	148
화북동	97	128	40	75	115						
삼양동	143	136	59	79	138	남제주(계)	3,863	3,882	1,610	2,264	3,897
봉개동	51	65	21	38	59	서귀읍	1,388	1,437	578	838	1,416
아라동	127	136	53	79	132	대정읍	627	584	261	340	601
오라동	90	89	37	52	89	안덕면	298	287	124	167	291
연 동	130	143	54	83	137	중문면	319	344	132	200	332
노형동	79	86	33	50	83	남원읍	562	566	234	330	564
외도동	84	86	35	50	85	표선면	263	266	109	155	264
이호동	50	31	20	18	38	성신읍	466	403	194	235	429
도두동	54	67	22	39	61						

나. 地域別 國民學校 入學豫定數에 의한 幼稚園 對象兒童數의 推計  
 地域別 幼稚園 就園對象者數는 그 地域의 國民학교 學年別 學生數의 어떤 傾向性과 밀접한 關係를 맺는다. 특히 國民학교 1학년 學生數와 다음과 같은 論理的 關係를 갖는다.

- ① 81學年度에 入學한 1學年 學生數는 80學年度의 幼稚園 就園對象 兒童이었다.
- ② 82學年度 1學年 入學生 推定數는 81學年度 幼稚園 就園對象者가 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81學年度 地域別 幼稚園 對象兒童數는 82學年度 1學年 入學 對象者를 推定하여 얻었으며 推定上의 前提의 推정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本道의 경우는 國民學校의 學區가 通學距離를 감안하여, 自然部落 單位로 設定되어 있기 때문에 그 地域(學區)의 年度別 1學年 入學者數는 前年度 유치원 대상 아동인 5세아수 (사망자, 진출입자, 특수교육 대상자등이 相互作用한 結果)가 直接 反映된 結果이다.

(2) 地域別, 年度別 國民學校 1學年 入學者數는 어떤 傾向性을 지니게 되며 이 傾向性에 의하여 82學年度 1學年 入學者數를 推定한다.

(3) 本道 國民학교 1學年의 年度別 入學者數의 傾向은 78學年度까지는 계속 增加現象을 보이다가 78學年度를 基點으로 79學年度 부터는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82學年度는 이 추세가 연장될 것을 金개로 한다.

(4) 本道의 年度別 1學年 入學者數는 다음 <表 30> 과 같다.

<表 30> 本道 國校 1학년 年度別 學生數

연 도	19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3年間
학생수	11,788		12,126		12,929		13,636		12,112		平均
		12,438		13,107		13,181		12,965		11,848	감소율
증가및								0,9508		0.9782	
감소율									0,9342		0.9541

※ 1981년 11,848名은 제주도 敎育위원회의 敎育통계연보에는 11,875로 되었음.

11,848은 本 연구자가 조사한 學生수이며 그 差異는 中도 탈락자로 사료 됨.

(5) 따라서 81學年度 幼稚園 對象者數는 82學年度 國民학교 1學年 入學豫定者로서 그 數는 現在 地域別 1學年 學生數에 3年間 平均 감소율 0.9541을 적용하여 얻었으며 그 數는 다음 <表 31> 과 같다.

### 3) 地域別 幼稚園 就園率

앞에서 2가지 方法에 의해서 推定한 81學年度 幼稚園 對象兒童數에 依해 81學年度 道內 地域別 就園率을 보면 다음 <表 32> 와 같다.

<表 31> 국교 1학년 학생수에 의한 지역별 유치원 대상 아동수

地 域	국민학교 1학년 학생 수	유치원 대상 아동 수	地 域	국민학교 1학년 학생 수	유치원 대상 아동 수
제주도 (계)	11,848	11,295	북제주군(계)	2,973	2,837
제주시 (계)	4,493	4,286	한림읍	571	545
일도동	333	318	에월읍	639	610
이도동	647	617	한경면	436	416
삼도동	1,224	1,168	조천면	470	448
용담동	591	564	구좌읍	637	608
건입동	532	508	추자면	220	210
회북동	137	131			
삼양동	172	164	남제주군(계)	4,382	4,182
봉개동	78	74	서귀읍	1,679	1,602
아라동	126	120	대정읍	594	567
오라동	72	68	안덕면	314	300
연 동	218	208	중문면	396	378
노형동	119	114	남원읍	618	590
외도동	99	94	표선면	285	272
이호, 도두동	145	138	성산읍	496	473

※ 제주시의 도심지 5개동의 1학년 학생수는 정확한 학구의 구분에 의하지 않고 국민학교 소재지 중심으로 집계한 것임. 또한 교대부국 180명을 5개동에 각 30명과 회북, 삼양동에 각각 15명씩을 배정했음.

<表 32> 81學年度 地域別 유치원 대상아동수 및 就園率 추정

구분	인구에 의한대			국 1년생에의		구분	인구에 의한대			국 1년생에의	
	유치원 아동수	대상아동	취원율 (%) A	대상아동	취원율 (%) B		유치원 아동수	대상아동	취원율 (%) A	대상아동	취원율 (%) B
제주도(계)	2,571	10,313	24.92	11,295	22.74	북제주군(계)	734	2,576	28.49	2,837	25.87
제주시(계)	956	3,840	24.89	4,286	22.30	한림읍	182	541	33.64	545	33.39
일도동	285	678	42.03	318	89.62	에월읍	111	505	21.98	610	18.20
이도동	129	631	20.44	617	20.90	한경면	74	359	20.61	416	17.79
삼도동	431	548	78.64	1,168	36.90	조천면	127	474	26.79	448	28.35
용담동	·	676	·	564	·	구좌읍	200	549	36.42	608	32.89
건입동	·	362	·	508	·	추자면	40	148	27.02	210	19.04
회북동	·	115	·	131	·						
삼양동	40	138	28.98	164	24.39	남제주군(계)	881	3,897	22.60	4,182	21.07
봉개동	·	59	·	74	·	서귀읍	225	1,416	15.88	1,602	14.04
아라동	·	132	·	120	·	대정읍	120	601	19.96	567	21.16
오라동	·	89	·	68	·	안덕면	80	291	27.49	300	26.67
연 동	71	137	51.82	208	34.13	중문면	118	332	35.54	378	31.22
노형동	·	83	·	114	·	남원읍	138	564	24.46	590	23.39
외도동	·	85	·	94	·	표선면	80	264	30.30	272	29.41
이호동	·	38	·	138	·	성산읍	120	429	27.97	473	25.37
도두동	·	61	·	·	·						

- 1) 취원율 A는 지역별, 세별 인구에 의해서 선출한 취원율임
- 2) 취원율 B는 지역별(학구)의 82학년도 국민학교 1학년 학생수의 추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임
- 3) 본 연구에서 A는 최대추정, B는 최소 추정으로 사용함
- 4) 본 연구에서는 최소 추정 B를 채택함

幼稚園의 就園率을 決定짓는 要因은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地域別 收容力이다. 收容力이란 觀點에서 就園率 狀況을 알아 보면, 제주도 전체의 就園율은 최대 24.92% (A方法에 의한 就園율), 최소 22.74% (B方法에 의한 就園율)에 머물러 있다. 地域적으로는 北濟州郡이 就園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제주시 그 다음이 남제주군 순서이다. 就園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 아동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용력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를 본다면 就園율 결정의 또 다른 요인 즉 학부모의 요구(능력)를 감안 한다면 지나치게 就園율 즉 수용능력이 모자라고 있다 게다가 지역적으로 都心地에 집중되어 있어서 僻地리 지역의 就園率은 0에 가깝다. 이런 현상은 서귀포시(읍)인 경우에 더욱 심하며 就園율이 14.04% (B方法)로서 道內에서 가장 낮은 就園率을 보이고 있다.

本道의 경우 就園率은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 一次的으로 地域別 收容力의 均衡을 기하는 일이다. 이것은 幼稚園의 地域別 分布를 調整하고 幼稚園 크기(학급수)를 조정하는 일이 된다.

#### 4) 幼稚園의 地域別 分布

本道에는 現在 132個 國民學校가 散在해 있다. 이는 濟州道의 人口나 面積에 비해 많은 數의 學校라 할 수 있다. 濟州道의 自然部落 單位로 극히 散在된 形態를 이루고 있어 도별로 通學可能 距離를 고려하나 보니 인근 自然部落들을 一單位로 하는 國民學校의 學區가 이루어졌다. 濟州道의 行政區域上의 里洞도 거의 自然部落 單位에 의해서 形成되어 있다.

國民學校의 1學區는 平均 1.5里, 洞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地域別 學區와 里, 洞의 數는 다음 <表33>와 같다.

<表 33>

本道의 里, 洞數 및 國교 學級수

地 域	里, 洞 數	國교 學級수	地 域	里, 洞 數	國교 學級수
제주도 (계)	195	132	남제주 (계)	96	61
제주시 (계)	17	20	서귀읍	16	10
북제주 (계)	92	51	태성읍	17	12
한림읍	21	7	안덕면	12	9
애월읍	25	14	중문면	12	6
한경면	15	7	남원읍	16	7
조천면	12	9	고천면	9	7
구좌면	14	11	심산읍	14	10
추진면	5	3			

濟州市는 里, 洞數보다 學區數가 많은데 이는 都心地에 學校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僻地리 지역은 里, 洞單位들 바탕으로 學區가 設定되어 있다. 따라서 國民學校의 學



區는 通學距離를 淸작한 最大限의 區域이기 때문에 幼稚園의 分布를 위한 區域單位도 最少한 國民學校 學區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 本道 幼稚園 通收規模의 限界

萬一에 本道 幼稚園 對象兒童을 全收容 한다고 할 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幼稚園 學區는 本道인 경우 學區의 크기를 最大로 한다고 해도 西歸浦와 濟州市를 除外하고는 國民學校 學區와 一致하게 된다.

따라서 國民學校 學區別 幼稚園 對象兒童 (推定에서 B의 경우) 分布를 살펴 보면 <表 34> 와 같다.

<表 34> 국민학교 학구별 유치원 대상 아동 분포

지역 ↓	학구 ↓	아동 →					
		~20	21~40	41~80	81~120	121~160	161~
제주도 (계)	132	4	27	48	11	6	16
제주시	20	1	3	3	3	2	8
북제주 (계)	(51)	(11)	(9)	(23)	(4)	(3)	(1)
애월읍	14	4	3	6	·	1	·
한림읍	7	1	·	5	·	·	1
한경면	7	·	2	4	1	·	·
조천면	9	3	3	1	1	1	·
구좌읍	11	2	1	6	2	·	·
추자면	3	1	·	1	·	1	·
남제주 (계)	(61)	(12)	(15)	(22)	(4)	(1)	(7)
서귀읍	10	·	·	4	2	·	4
매정읍	12	4	5	2	·	·	1
안덕면	9	5	1	2	1	·	·
중문면	6	1	·	4	·	·	1
남원읍	7	·	·	5	1	·	1
표선면	7	1	4	2	·	·	·
성산읍	10	1	5	3	·	1	·

單位 國民학교 學區의 幼稚園 對象兒童은 大部分 80名 以下로서 그런 學區數는 99個 區域이다. 이는 全體 132個 學區의 75%를 차지하며 이는 제주시와 西歸浦를 除外하면 約 97%가 80名 미만의 유치원 대상자를 갖고 있는 學區이다.

따라서 本道에서는 幼稚園 對象兒童의 完全就園, 또는 完全收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學級當 40名을 基準하면 全體 幼稚園 數의 約 75%가 2학급 미만인 幼稚園이 불가피하게 된다.

나. 將來 所要 幼稚園數 및 學級數

將來 幼稚園이나 學級數를 增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깃째 濟州市나 西歸浦의 都心地域과 같이 現在 狀況으로 볼 때 共同學區로 學級增設이나 幼稚園 新設이 가능한 地域

둘째 通學이 可能한 學區內에 幼稚園이 있어도 收容能力이 不足하여 學級數를 늘려야 할 地域

세째 通學이 可能한 學區內에 幼稚園이 없기 때문에 幼稚園 新設이 必要한 地域

네째 국민학교 分校場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通學可能 距離로 보면 學區가 獨立되어야 하겠으나 對象兒童이 20名 미만으로 現在 조건으로는 幼稚園設置가 實質的으로 어려운 地域이다.

위의 4가지 경우를 基礎로 木道 地域別 學區別 所要<sup>13)</sup> 幼稚園數 및 學級數를 살펴보면 <表 35> 와 같다.

<表 35> 地域別 所要 幼稚園 및 學級數

지역	구분	현 존 유 치 원				
		유 치 원 수	학 급 수	소 요 유 치 원	학 급 수	
					50% 수 용	100% 수 용
제주도 (계)		34(17)	35(35)	58	69(32)	121(87)
제주시		(10)	(27)	9	10(18)	17(52)
북제주 (계)		18 (1)	19 (1)	22	26 (1)	48 (2)
애월읍		3	3	7	8	11
한림읍		4	5	2	3	8
한경면		2	2	5	5	9
조천면		3 (1)	3 (1)	3	4 (1)	6 (2)
구좌읍		5	5	4	4	10
추자면		1	1	1	2	4
남제주 (계)		16 (6)	16 (7)	27	33(13)	56(33)
기귀읍		2 (3)	2 (4)	3	6(10)	11(24)
대정읍		2 (1)	2 (1)	5	5 (2)	8 (5)
안덕면		2	2	2	3	5
중문면		3 (1)	2 (1)	2	2 (1)	4 (3)
남원읍		2 (1)	3 (1)	3	4	11 (1)
포선면		2	2	6	6	8
성산읍		3	3	7	8	10

( )안은 사립 유치원 임.

<地域別, 學區別 所要判斷의 前提><sup>14)</sup>

① 1981학년도 대상아동을 基準하여 所要 幼稚園 및 學級數를 推定

13) 本 研究에서 「所要」란 뜻은 현존 유치원이나 학급수 외에 증설을 요하는 수로 쓰임.

14) 以下의 前提에서 推定한 學區別 所要 유치원 및 학급수는 本 연구 부록을 참조.

- ② 對象兒童의 50%를 收容할 경우와 100%를 收容할 경우를 想定해서 推定했음
- ③ 기존 幼稚園이 있는 學區는 學級增設만을 원칙으로 했음.
- ④ 1學級 40名을 基準으로 하니 100% 收容 때에는 정원초과 20名 이상인 때만 1學級으로 환산했음.
- ⑤ 50% 수용시 정원초과 10名 이상이면 1學級 增設로 계산 했음.
- ⑥ 현재 대상아동이 20명미만인 학구는 유치원 所要學區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20명이상 (50%수용시 10명 이상) 의 學區는 1學級으로 환산했음.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全體로 보면 幼稚園 對象兒童을 100% 收容하려면 總 109個所의 幼稚園에 總 279學級이 必要하며 現存 51個所 幼稚園 (公立 34, 私立 17)과 70學級(公立 35, 私立 35)을 除外하면 58個所의 幼稚園 新設과 208學級 (公立 121, 私立 87)이 所要된다.

對象兒童의 50%를 收容한다고 할 때에는 總 109個所의 幼稚園에 總 171學級이 必要하며 現存 幼稚園을 除外하면 58個所의 幼稚園의 新設과 101學級 (公立 69, 私立 32)의 新設 또는 增設이 所要된다. 對象兒 100%收容을 基準으로 할 때 現存 幼稚園의 확보율은 46.4%이며 學級확보 狀況은 28.0%이다.

對象兒童 50%收容을 基準으로 한다면 現存 學級數 69는 總 必要 學級數 171의 40.7%이다. 地域別로 살펴 보면 濟州市가 9個所의 幼稚園의 新設과 28學級の 新設 또는 增設이 所要되며, 現存 幼稚園 10은 總 必要數 19의 52.6%이며 學級數 55는 總 필요수의 49.1%이다. 北濟州의 경우는 22個所의 유치원과 27學級の 新設 또는 增設이 요청되며 확보율은 유치원이 46.3%, 學級數가 42.6%이다. 南濟州의 경우 27個所의 幼稚園과 46學級の 新設 또는 增設이 요청되며 確保率은 유치원이 44.0%, 學級數가 32.8%이다.

地域別 均衡이란 관점에서 보면 現在 南濟州가 가장 不利한 狀況에 놓여 있어 앞으로 幼稚園 新設 및 學級增設에 있어서 地域別 우선순위는 南濟州를 一次的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幼稚園의 新設과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問題가 學級數의 增設問題인데 全道的으로 볼 때 幼稚園 新設을 所要로 하는 總 58個 區域에 總 60學級の 新設과 24個所 기존 유치원에 總 46學級 增設이 所要된다.

學級增設을 所要로 하는 곳을 보면 제주시에는 共同學區에 있는 10個所 私立幼稚園에 18學級 增設이 필요하다.

北濟州에는 朝天面 朝天에 있는 私立 幼稚園에 1학급, 허귀, 한림, 한덕, 추자의 公立 幼稚園에 각 1學級씩 4學級の 增設이 所要된다.

南濟州에는 서귀포시의 공동학구에 있는 2個所 私立 幼稚園에 10學級, 德靖과 중문에 있는 私立에 3學級, 토림, 효돈, 안덕, 위미, 동남의 公立에 5學級の 增設이 所要된다.

이를 學區別보면 (부록 참조)

#### <제 주 시>

제주시의 경우 현재 공동학구는 동교, 서교, 남교, 북교, 일도교, 광양교, 중앙교, 신제주 국민학교의 學區를 포함한다.

이 區域에는 現在 私立 幼稚園만 설치되어 있으며 9個所 幼稚園에 26學級이 設置되어 있다. 앞으로 계속 私立 幼稚園에 의존하고 대상아동 50%를 收容할 경우 현존 26학급외에 17學級の 增設이 필요하다.

그의 地域은 濟州市의 외곽동의 學區로서 通學別 離土 地域別 學區制가 必要한 地域으로 대상아동이 20명 미만인 도킹 지역을 제외한다 해도 9個所 幼稚園의 新設과 대상아동 50%인 경우 삼양 유치원(私立)의 기존 1학급외에 1학급 增設과 기타 地域의 10學級, 모두 11학급의 增設이 필요하다.

#### <북 제 주>

이 地域은 共同學區를 必要로 하는 곳은 없으며 모두 地域적으로 獨立된 學區를 必要로 하는 地域이다.

이 地域은 41個所의 地域學區(11개소의 分校場은 제외)를 必要로 하며 現在 19個所(1個所는 사립 유치원)에 幼稚園이 設置되어 있으며 앞으로 22個所에 幼稚園의 新設을 要하는 곳이다.

#### <남 제 주>

南濟州의 경우 西歸浦에 현재 4개 국민학교 학구들 포함하는 공동학구의 必要 地域에 2개소의 私立 幼稚園에 3學級이 設置되어 있다. 이 지역도 앞으로 계속 私立 幼稚園에 의존할 경우 10學級の 增設이 必要하다.

그의 지역은 모두 地域적으로 獨立된 學區를 必要로 하는 地域이다. 따라서 47個所의 地域學區(10개소의 分校場은 제외)를 必要로 하며 現在 4個所에 私立 幼稚園과 16個所에 公立 幼稚園이 設置되어 있으며 앞으로 27個所에 幼稚園 新設이 必要한 地域이다.

## Ⅳ 本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 및 提言

### 1. 本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

濟州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 內容 중에는 全國水準의 問題點이 있고 本道 특수여건에 따른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實際에 있어서는 兩者는 뚜렷이 區分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앞의 現況分析을 通해 本道 特殊與件에 따른 問題點이라는 觀點에 照明하여 本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을 서술한다.

**1) 收容能力의 不足**

本道の 未就學父母(유치원 적령아동을 누엇어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父母)의 61.5% 가 유치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本道 就學率은 22.74%이다.

**2) 地域別 收容力 (教育機會)의 不均衡**

幼稚園 教育의 기회확대를 위해 국가가 努力을 경주한다면 幼稚園 設立의 地域別 우선순위는 文化的 혜택이 가장 불리한 地域에서 부디 設立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道 公立 幼稚園의 設置는 일주도로변의 邑面地域에 편중되어 있다. 市, 邑, 面別로 就學率 (收容能力)이 가장 낮은 곳은 서귀읍의 14.0%이며, 취원률이 0에 가까운 곳은 제주시의 외곽동과 중산간 지역이다.

**3) 幼稚園 適正規模의 限界**

本道の 自然部落은 해안지역과 山間地域에 散在해 있다. 本道の 國民學校 學區는 通學可能 距離를 고려한 平均 1.5里, 洞으로 構成된 地域別 學區이다. 이 學區는 도보로 通學이 가능한 最人의 구이이다. 이 地域別 學區內의 幼稚園 對象兒童數는 本道 全體의 75%가 (서귀포와 제주시를 제외하면 97%가) 80名미만이다. 따라서 共同學區 가능한 서귀포와 제주시 都心地域을 除外하면 完全 就學이 이루어진다 해도 全體 幼稚園의 約 75%가 2學級 미만의 幼稚園이 불가피하다.

**4) 施設·設備의 未備**

本道 幼稚園 教師의 82.9% (公立 100%, 私立 59.1%)가 施設, 設備의 未備를 들고 있다 이질은 公立 幼稚園이 더욱 심한 것 같다. 多樣하게 個別學習을 시킬 수 있는 施設, 設備의 未備는 획일적인 學習의 強行要因이 되기도 한다.

**5) 幼稚園 教師로서의 긍지 및 만족도**

本道 私立 幼稚園 教師의 94.4%가 幼稚園 教師로서의 긍지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공립 유치원 교사의 66.7%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一般的으로 不滿의 要因은 私立에 있어서 는 專門職者로서의 認定과 그에 따른 대우부족등 이며 公立에 있어서 는 「검직」 등이다.

**6) 公立 幼稚園 教師의 검직 문제**

本道 34개소 公立 幼稚園중 7個所 幼稚園이 專任教師가 配置되어 있고 나머지 27개소 유치원은 검직교사이다. 本道 유치원 교사의 44.7% (公立 55.0%, 私立 33.3%)가 국민학교 교사의 유치원 검직을 반대하고 있다.

## 7) 幼稚園 敎員의 資質

本道 私立 幼稚園의 17名 園長 中에 資格證 所持者는 1名이며 70%가 종교계 출신이다. 10名의 園長 中에 1名이 유지각, 3名이 교사자격증 소지, 즉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은 전체의 40%이다.

敎師는 80.95%가 유자격이며 경력에 있어서는 5년이하가 전체의 81.9%이다.

## 8)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일반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이 유치원 교육 부진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비학부모의 61.2%가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미약에도 기인하고 있다.

## 9) 학급당 원아수 문제

本道 私立 幼稚園의 學級當 敎師數는 1.2인이다. 본도 유치원 교사의 92.5%가 교사 1인당 키징이동수를 최소 20~30명을 원하고 있다.

## 10) 時間表와 學習活動의 연계성 不足

學習活動 計劃을 위한 요일별 시간표는 발달영역별로 짜여져 있는데 實際 學習計劃이나 學習活動은 活動內容別 (例, 동화, 그리기 등)로 이루어지고 있다.

## 11) 知的發達의 關心 問題

敎師들의 幼稚園 敎育의 性格, 目標의 理解面이나, 敎育活動 內容 등에서 知的 發達 促進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음.

## 12) 1日指導時間 問題

公立 幼稚園에는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유치원 아동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며 농촌인 경우 이동들의 기심 때문에 일찍 돌려 보내야 하므로 학부모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 問題 解決을 위해서 본도 교사의 79.5%가 간식제공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

## 13) 研修·再敎育機會의 問題

敎師들의 研修·再敎育 機會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제까지 연수기회가 한번도 없었던 교사가 44.4% (공립 50%, 사립 37.5%)에 이르고 있다. 그 郡市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道內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기회가 없고 (58.8%) 주로 道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의 45.2%가 원장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적극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들에게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14) 장학지도의 問題

教育廳의 장학지도나 감사 內容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敎師들의 복지후생대책 (호봉제의 엄격한 적용여부, 의료보험제도 혜택 등)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 유치원 自體內에서의 장학기능 (원장이나 원감의지도)이나 자세연수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자체적으로 개인연구 발표나 시범지도의 사례를 한번도 가져 보지 못한 교사가 69.6%에 이르고 있다.

## 2. 提 言

앞길의 “濟州道 幼稚園 教育의 問題點”에서 本道 幼稚園 教育 全般에 관한 問題點과 그의 解決方案에 관한 시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本 提言에서는 本道 幼稚園 設置의 地域的 均衡을 이룩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地域別 分布 調整의 觀點에서의 提言만을 다룬다.

本 提言의 基礎로서 收容力 (就園率)은 幼稚園 就園對象兒의 50%의 收容을 前提로 한다.

### 1) 제 주 시

제주시의 경우 共同學區로서 가능한 지역은 동교, 서교, 남교, 북교, 인도교, 광양교, 중앙교, 신제주 국민학교의 학구를 포함하는 구역이다.

이 區域에는 現在 私立 幼稚園만 設置되어 있으며 9個所 幼稚園에 26學級이 設置되어 있다 앞으로 계속 私立 幼稚園에 의존할 경우 현존 26學級外에 17學級の 增設이 必要하다.

그의 地域은 濟州市의 西峽동의 學區로서 地域別 學區制가 必要한 地域으로 對象兒童이 20名 미만인 도핑지역을 제외한다 해도 9個所 幼稚園의 新設 (학급수는 10학급)과 삼양 유치원 (사립)의 기존 1학급외에 1학급 增設, 모두 11學級이 必要하다.

### 2) 북 제 주

이 地域은 共同學區를 必要로 하는 곳은 없으며 모두 地域적으로 獨立된 學區를 必要로 하는 地域이다.

이 地域은 41個所의 地域學區(11개소의 分校場은 제외)를 必要로 하며 現在 19個所 (1個所는 私立)에 幼稚園이 設置되어 있으며 앞으로 22個所에 1學級 規模의 幼稚園 新設을 要한다.

기존 유치원에 1學級 增設을 要하는 地域은 조천, 하귀, 한림, 함덕, 추자의 5개 地域이다

## 3) 남 제 주

南濟州의 경우 西歸浦의 都心에 있는 4개 국민학교 학구가 共同學區의 가능 구역이다. 이 지역에 현재 2個所의 私立 幼稚園에 3學級이 設置되어 있다. 이 지역도 앞으로 계속 私立 유치원에 의존할 경우 10學級 增設이 必要하다. 그의 地域은 모두 地域的으로 獨立된 學區를 必要로 하는 地域이다. 따라서 47個所의 地域學區 (10個所의 分校場 除外)를 必要로 하며 現在 4個所에 私立 幼稚園과 16個所에 公立 幼稚園이 設置되어 있으며 앞으로 27個所에 1學級 規模 (서귀포의 서호에는 2학급)의 幼稚園 新設이 必要하다.

現存 幼稚園에 學級增設을 要하는 地域은 대정이 2학급 그의 중문, 토핑, 효문, 안다, 위미, 동남에 각 1學級の 增設이 必要하다.

## 參 考 文 獻

- 金光雄 外 4인, 韓國幼稚園 教育의 現況과 問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1975 8-5-65
- 李鍾昇 外 1인, 幼兒教育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오트, 1973 73-15
- 李相琴 “韓國幼兒教育의 歷史와 理念” 한국교육학회 (편), 特殊領域教育의 諸問題, 서울: 주식회사 능력개발, 1974.
- 李恩和, “幼兒教育의 現況과 問題”, 한국교육 학회 (편) 특수교육의 재문제, 서울: 주식회사 능력개발, 1974
-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주교육통계연보, 1981.
- 朱世煥, 幼稚園教育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제 36집),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64.
- 제주도청, 1979년 상주 인구 조사 결과 보고, 1979.



— ABSTRACT —

## Kindergarten Education in Jeju : Its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h Kvang - Chong

The main purpose of this survey is as follows.

- 1) Surveying the present situation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Jeju.
- 2) Finding out the problems on the present kindergarten educational practices in Jeju.
- 3) Finding out the problems on the local distribution of kindergarten and making a suggestion to arrange new kindergartens by regional group as an idea to realiz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in kindergarten education.

In order to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k-education, in this paper the seven variables, which seemed to influence the k-education, are established.

- Those are
- 1) planing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 2) the process and method of learning and teaching
  - 3) the readiness of childrens for learning
  - 4) administration supporting system
  - 5) parents attitude toward k-education
  - 6) perception of parents of non-attender to kindergarten
  - 7) the situation of kindergartens local distribution.

The above seven variables are classified in two dimension, one is direct factor influenc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 the other is indirect factor.

These variables classified in two dimension are the content of this survey.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 survey, 35 kindergartens, 42 teachers 362 parents of k-attender and 270 parents of non-attender were selected by stratified sampling.

The statistical materials employed for analyses in each area of the variables were mainly based on documents, observation, questionnaire, kindergarten visits and interviews with parent, principal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s.

Finding and suggestion as a results of analyses in each variable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the ratio of k-attendance in Jeju is 22.75%.

In order to accomplish the 50% of k-attendance as a national goal and realize the equal opportunity of kindergarten by regional group, new kindergarten establishment is needed. the required number of kindergartens and its classes are as follows.

	Kindergarten	Class
Present Number	51	70
Needed Number	58	101

2. the great shortage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learning material is a powerful impedimentary factor to provide childrens with variety of learning experience
3. Administrative supporting for teacher's teaching activities is insufficient, it makes k-teachers to be in difficulty and ineffective for their k-educational practicies.

〈부 록〉

지역별, 학구별 소요유치원 및 학급수

국민학교 학구	구 분 대상아동	현 존 유 치 원		소 요 유 치 원		
		유치원수	학 급 수	유 치 원	학 급 수	
					50% 수용	100% 수용
제 주 도 계	11,295	34(17)	35(35)	58	69(32)	121(87)
제 주 시 계	4,286	(10)	(27)	9	10(18)	17(62)
공동학구 (8개국교)	3,409	(9)	(26)	·	(17)	(59)
화북	116	·	·	1	1	3
삼양	150	(1)	(1)	·	(1)	(3)
봉개	51	·	·	1	1	1
아라	87	·	·	1	1	2
영평	33	·	·	1	1	1
오리	69	·	·	1	1	2
노형	93	·	·	1	1	2
도평	18	·	·	△	△	△
외도	76	·	·	1	1	2
도리	138	·	·	1	2	3
해안	21	·	·	1	1	1
북 제 주 계	2,837	18(1)	19(1)	22	26(1)	48(2)
애월읍 계	610	3	3	7	8	11
하귀	137	1	1	·	1	2
물메	24	·	·	1	1	1
광령	51	·	·	1	1	1
장전	48	·	·	1	1	1
구업	70	1	1	·	·	1
더덕	38	·	·	1	1	1
남읍	39	·	·	1	1	1
애월	68	1	1	·	·	1
괘급	58	·	·	1	1	1
어도분교	56	·	·	1	1	1
장전	4	·	·	△	△	△
금덕분교	0	·	·	△	△	△
어읍분교	16	·	·	△	△	△
화건분교	0	·	·	△	△	△
한림읍 계	545	4	5	2	3	8
귀덕	72	1	1	·	·	1
수원	79	1	1	·	·	1
한림	219	1	2	·	1	3
명월	50	·	·	1	1	1
금악	51	·	·	1	1	1
계릉	70	1	1	·	·	1
비양	5	·	·	△	△	△
한경면 계	416	2	2	5	5	9
판포	67	·	·	1	1	2

( ) 안은 사립 유치원임. △은 20명미만 대상 아동 지역

구분 주민학교 학구	대성아동	현 존 유 치 위		소 요 유 치 위		
		유치원수	과 급 수	유 자 원	학 급 수	
					50% 수용	100% 수용
신창	73	1	1			1
용수	30	.	.	1	1	1
고산	96	1.	1	.	1	1
신양	25	.	.	1	5	1
조수	54	.	.	1	1	1
저청	72	.	.	1	1	2
조천면 계	448	3(1)	3(1)	3	4(1)	6(2)
신촌	70	1	1	.	.	1
조천	116	1(1)	1(1)	.	(1)	(2)
대홀	31	.	.	1	1	1
힘덕	126	1	1	.	1	2
신흥	36	.	.	1	1	1
북촌	27	.	.	1	1	1
신흥	18	.	.	△	△	△
교래분교	12	.	.	△	△	△
선인분교	5	.	.	△	△	△
추자면 계	210	1	1	1	2	4
추자	137	1	1	.	1	2
신양	69	.	.	1	1	2
황간분교	4	.	.	△	△	△
구좌읍 계	608	5	5	4	4	10
동북	16	.	.	△	△	△
김녕	96	1	1	.	.	1
구좌중앙	68	1	1	.	.	.
한동	47	.	.	1	1	1
평대	53	.	.	1	1	1
새화	75	1	1	.	.	2
송당	36	.	.	1	1	1
하도	73	1	1	.	.	1
종달	52	.	.	1	1	1
연평	82	1	1	.	.	2
덕천	9	.	.	△	△	△
남제주 계	4,182	16(6)	16(7)	27	33(13)	56(33)
서귀읍 계	1,602	2(3)	2(4)	3	6(10)	11(24)
공동학구(4개국교)	1,024	(2)	(3)		(10)	(23)
법환	72	.	.	1	1	2
서호	117	.	.	1	2	3
도평	112	1	1	.	1	2
영천	44	.	.	1	1	1
효돈	171	1	1	.	1	3
보목	63	(1)	(1)	.	.	(1)
대정읍 계	567	2(1)	2(1)	5	5(2)	8(5)
대정	252	(1)	(1)		(2)	(5)

국민학교 학구	구 분 대상아동	현 준 유 치 원		소 요 유 치 원		
		유치원수	학 급 수	유 치 원	하 급 수	
					50% 수용	100% 수용
대정서교	68	1	1	.	.	2
무릉	30	.	.	1	1	1
영락	27	.	.	1	1	1
무릉동교	27	.	.	1	1	1
신도	39	.	.	1	1	1
보성	69	1	1	.	.	1
가파	22	.	.	1	1	1
보흥분교	9	.	.	△	△	△
구역분교	10	.	.	△	△	△
신평분교	13	.	.	△	△	△
마라분교	3	.	.	△	△	△
안덕면 계	300	2	2	2	3	5
인덕	114	1	1	.	1	2
사계	50	1	1	.	.	1
덕수	31	.	.	1	1	1
서광	13	.	.	△	△	△
창천	48	.	.	1	1	1
대평	8	.	.	△	△	△
광명분교	15	.	.	△	△	△
동광분교	16	.	.	△	△	△
상천분교	6	.	.	△	△	△
중문면 계	378	2(1)	2(1)	2	2(1)	4(3)
중문	157	(1)	(1)	.	(1)	(3)
예례	60	1	1	.	.	1
도순	61	.	.	1	1	2
하원	57	1	1	.	.	.
강정	42	.	.	1	1	1
색달분교	0	.	.	△	△	△
표선면 계	272	2	2	5	5	7
표선	78	1	1	.	.	2
하천	38	.	.	1	1	1
성읍	43	.	.	1	1	1
화산	28	.	.	1	1	1
토산	28	.	.	1	1	1
가마	20	.	.	1	1	1
가시	37	1	1	1	1	1
남원읍 계	590	3(1)	3(1)	3	4	11(1)
남원	90	(1)	(1)	.	.	(1)
의귀	78	.	.	1	1	2
하례	55	.	.	1	1	1
신평	72	1	1	.	.	1
위미	147	1	1	.	1	3
태흥	74	1	1	.	.	2
홍산	73	.	.	1	1	2

국민학교 학구	구 분 대상이동	현 존 유 치 원		소 요 유 치 원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	학 급 수	
					50% 수용	100% 수용
성산읍 계	473	3	3	7	8	10
동남	133	1	1		1	2
성산	68	.	.	1	1	2
온평	34	.	.	1	1	1
난산	29	.	.	1	1	1
신산	40	1	1		.	.
삼달	29	.	.	1	1	1
풍천	32		.	1	1	1
수산	45	1	1		.	.
시흥	44	.	.	1	1	1
신풍분교	20	.	.	1	1	1